

## REVIEW ARTIC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8;57(1):52-80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Received August 28, 2017  
Revised December 16, 2017  
Accepted December 23, 2017

Address for correspondence  
Sung Kil Min, MD, PhD  
Hyoja Geriatric Hospital,  
1-30 Jungbu-daero 874beon-gil,  
Giheung-gu, Yongin 17089, Korea  
Tel +82-31-288-0600  
Fax +82-31-288-0539  
E-mail skmin518@yuhs.ac

## 헤르만 헤세의 우울증, 경건주의, 그리고 정신분석

효자병원

민 성 길

### Hermann Hesse's Depression, Pietism, and Psychoanalysis

Sung Kil Min, MD, PhD

Hyoja Geriatric Hospital, Yongin, Korea

Hermann Hesse's personal life (1877–1962) is characterized by traumatization caused by suppressive pietistic discipline of his parents during his youth, and depression in his middle age accompanied by psychoanalysis treatment. At the age of 15, he was admitted to mental institutions due to defiant behavior. With this traumatic experience, his psychosexual development seemed inhibited during his adolescence. At age 39, depression developed precipitated by the death of his father. Hesse had received Jungian psychoanalysis from Dr. Lang and Dr. Jung over a 10-year period. However, psychoanalysis could not prevent the recurrence of depression. His appreciation of psychoanalysis became critical. Meanwhile, Hesse announced that he had been a Protestant Christian. In his 50s, he began to create new novels which, beyond polarity based on Jungian psychoanalysis, described the journey toward a greater harmonious and spiritual oneness. Pietism was at one time the reason of his pain, but became life-long support for Hesse's spiritual maturity. He was diagnosed with type II bipolar disorder. The main dynamic factors are thought to be ambivalence, feelings of guilt regarding his aggression toward his parents, and sexual conflict. His coping mechanisms seemed to include pietistic self-control, avoidance, scholarship and creation of literature. By writing the autobiographical Bildungsromans, Hesse tried not only to master his own personal problems but to enlighten readers. However, it seemed that he could not overcome the feelings of guilt associated with leaving his father.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8;57(1):52-80

**KEY WORDS** Hermann Hesse · Pietism · Depression · Jung psychoanalysis · Ambivalence · Aggression · Sexual conflict · Guilt feeling · Literal creation.

## 서 론

헤르만 헤세(1877~1962)는 청소년기에 반항행동으로 정신요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중년기에 또 다시 빈번한 우울증의 삽화들로 1916년부터 10여 년간 여러 차례 융(C. G. Jung)과 융의 제자 랑(Joseph Bernhard Lang)으로부터 융 학파의 정신분석(융 분석)을 받았다.<sup>1-4)</sup> 이 논문에서 말하는 정신분석이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융의 분석심리학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융학파는, 집단무의식, 원형(Archetype) 이론, 그리고 치료방법 등에서 프로이트 학파와 다르다. 헤세는 두가지 학파에 대해 모두 공부하고 문학창조에 응용했으나, 자신의 우울증 치료에서는 융학파의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헤세의 문학과 정신분석 간의 관련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문학비평적 연구들이 있다.<sup>5-14)</sup> 그러나 헤세 자신의 우울증에 대한 정신의학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 그의 우울증과 관련하여 헤세는 어릴 때부터 부모와 그들의 경건주의로부터 트라우마를 받았다는 연구<sup>15-18)</su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그의 여러 전기들<sup>1-4)</sup>과 <요약된 이력서><sup>19)</sup> 및 관련 문헌들을 통해, 경건주의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 경험과 우울증 발생 간의 관련, 그리고 정신분석 치료 전후 헤세 사상과 문학에서의 변화 등을, 기술정신의학과의 대조되는 일반적인 역동적 관점에서, 증례 연구의 방법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전에 헤세의 청소년기 관련 자료<sup>20)</sup>를 통해 당시 위기에 대한 연구<sup>21)</sup>를 한 바 있으나, 이제 이를 확대하여 그의 중년기 우울증과 정신역동과 다시 헤세에 의해 수용된 경건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확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이 연구가 헤세를 직접 진찰한 결과가 아니며, 저자가 독일어 원전에 접근하고 독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하나의 시론으로 추후 자세한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도 이 연구는 한 작가를 통해, 소아청소년기 경험, 종교, 우울증, 문학창조, 정신분석 등이 상호 영향을 끼치는 바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 헤세의 우울증

### 원 인

#### 소 인

헤세의 집안에 우울증의 유전적 소인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주 울음, 불면증, 두통 등 우울증 삽화를 보였고, 헤세의 한 남동생은 중년에 자살하였고, 어머니의 이전 결혼에서 난 아들 한 사람도 정신장애가 있었다.<sup>1)</sup> 헤세의 타고난 예민하고 고집스럽고 반항적인 기질, 소위 외상적인 ‘잊혀진 기억’, 그리고 경건주의자 부모의 억압적 양육방식에 따른 소아청소년기 트라우마 등도 중요한 소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 유발인자

첫째, 헤세는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부부불화를 겪어 왔는데, 중년기 즈음 부인의 정신상태가 거의 정신병적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헤세는 예술가는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곤 하였는데, 헤세도 자신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던 듯하다. 둘째, 당시 한 아들에게 원인 미상의 뇌병이 발생했다. 자식의 파괴적 행동 증상은 직접 부모를 괴롭힐 수도 있고, 부부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식의 병은 어렸을 적 헤세 자신의 부모와 관련된 갈등을 재현시켰을 수도 있다. 셋째, 1914년에 시작된 1차 세계대전이 여러 면에서 중요한 유발인자가 되었다. 우선 전쟁 자체도 조국 독일이 야기한 하나의 폭력으로, 과거 아버지와 마울브론 신학교 교사들과 정신요양원이 자신에게 가한 억압을 상기시켰을 것이다. 또한 그의 반전 평화사상이 조국 독일 사회로부터 ‘배반자’, ‘매국노’ 같은 극심한 비난을 불러왔는데, 이는 헤세를 심각한 양가감정적 갈등에 빠지게 하고 죄의식을 가중시켰다. 그의 〈요약된 이력서〉<sup>19)</sup>에 쓰여진 ‘스파이 활동과 음모’, ‘미행’, ‘염탐’, ‘의심’ 등의 단어들로 당시 헤세의 예민한 피해의식과 두려움을 알 수 있다. 넷째, 조국에 대한 죄의식은, 헤세로 하여금 독일군 포로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게 하였지만, 이는 그를 극도로 피곤하게 만들었다. 전쟁 포로라는 것 역시 폭력과 그 피해를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였다.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양가감정적 갈등과 죄의식을 가중시켜 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 현병력

헤세가 15세일 때, 다니던 신학교 교사들에 반발하여 학교를 탈출하는 사건을 일으켜 정신요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당시 병명은 멜랑콜리아였다.<sup>20)</sup> 이후 헤세는 중년기까지 여러 차례 가벼운 우울증 삽화들과 경조증의 삽화들을 보았다. 그는 우울기분과 정신신체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의사들의 도움을 받았고 여러 차례 요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sup>22)</sup>

1916년 헤세가 39세 때 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했다. 아버지는 독일에서 딸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눈 멀, 두통, 불면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헤세는 자신도 힘든 삶을 살아가던 터라 아버지와는 다소 무심하게 지냈다. 갑작스런 아버지 죽음 소식에 헤세는 놀라고 심한 죄의식에 사로잡혔다.<sup>17)</sup> 그는 25세 때 어머니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양가감정적 갈등이 자극되어 청소년기에 겪은 우울증이 재발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 장례식에는 참석하였다. 그는 급히 기차를 타고 베른을 떠나 국경을 넘어 독일로 갔다. 그는 여행하면서, “상실의 잔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sup>5)</sup> 그는 사춘기 이후 늘 아버지에 대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분노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내심 아버지의 위로와 인정을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그의 머리에 닿는 아버지의 축복의 손길을 느낄 수 없다는 절망감, 막연한 증오와 분노, 무능감 등이 그를 휩쌌다. 당시 그는 아버지 얼굴을 ‘성자’의 얼굴로 회상했다고 한다. 아버지의 죽음은 헤세가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독일적 뿌리가 제거되었다고 느꼈고 결국 홈리스(homeless)가 되었다.<sup>1)</sup> 그런데다가 당시 1차 세계대전 중이라 헤세는 국경을 넘는데 많은 고생을 했다. 장례식 후 스위스로 돌아올 때도 하필 국경선이 폐쇄되어 48시간이나 묶이는 바람에 그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다(그 국경은 자유롭고 안전한 중립국 스위스와 폭력적인 아버지의 나라 독일 제국 사이의 경계이다).

급격히 우울증이 발생하였다. 그 증상은 우울감, 절망적인 기분, 자살 충동, 극도의 불안, 불면증, 참을 수 없는 두통, 발작적 어지러움 등이었다.<sup>6)</sup> 이때 헤세의 상태는 ‘정신병 발병’으로 기술되고 있다. 헤세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정신분석을 받기로 하였다.

## 기독교 경건주의

### 역 사

15세기 종교개혁 후 200년이 흐르면서, 30년 전쟁 등 신구

교의 갈등과 루터교의 부패, 사변적으로 흐른 신학과 교리, 그리고 전반적인 유럽의 황폐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바로잡고자 17세기에 계몽주의와 경건주의(pietism)가 나타났다. 이 두 사조는 다 같이 기독교의 권위와 미신성에 대해 비판하였으나 그 해결 방법은 서로 달랐다.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으로, 경건주의자들은 신앙의 갱신으로 접근하였다.

경건주의 운동은 17세기 프랑크푸르트의 루터교 목사 슈페너(Philipp Jakob Spener, 1635~1705)에 의해 시작되었다.<sup>23)</sup> 그는 다시금 교회의 도덕적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그 방안의 하나로 자신의 집에서 소그룹 모임을 결성하고 주일 밤과 수요일 밤마다 성경공부, 기도, 설교토론, 경건서적 읽기 등을 시행하였다. 이 모임을 ‘경건의 모임(collegia pietatis)’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경건주의’라는 말이 나왔다. 슈페너와 그의 제자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는 할레대학을 경건주의의 중심으로 발전시켰다. 할레 경건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공헌은 선교였다. 경건주의는 비슷한 시기 즉 16~17세기 영국에서 영국교회에 대항하여 나타난 청교도 운동과 유사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

15세기 종교개혁 이후 독일인들에게 자기 검토(self-examination) 내지 자기 앎(self-knowledge)은 하나의 강박관념이 되었는데, 이 경향은 경건주의의 출현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17~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작가, 시인 및 음악가들은 대개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다.<sup>24)</sup> 특히 독일 경건주의는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수많은 찬송가와 경건문학을 생산함으로써 독일 낭만주의의 뿌리 중 하나가 되었다. 독일 경건주의는 박애, 사회봉사 정신, 선교 정신, 사회주의 정신 등이 합쳐지면서, 근대에 이르러 ‘행동하는 교회(Kirche in Aktion)’로 발전하였으며, 1975년에 이르러 독일 개신교 사회봉사국(Diakonie)으로 나타났다. 현재 독일의 많은 병원들이 Diakonie 소속 병원이다.

경건주의 운동은 18세기에 이르러 독일어를 말하는 지역, 특히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발틱 지역(헤세의 친할아버지가 경건주의자로 살던 에스토니아 등)으로 퍼져 나갔다. 일부 경건주의자들은 루터교회를 떠나 그들 나름대로의 형제교단 같은 공동체를 만들었다. 독일 경건주의와 형제교단 운동은 웨슬리(John Wesley)의 영국 감리교 운동을 자극하였다. 경건주의는 이어 네덜란드의 ‘제2의 종교개혁 운동’, 프랑스 가톨릭의 안센주의 운동, 동유럽 유대교의 하씨디즘 운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 독일과 북유럽의 경건주의자들은 미국으로 이주하여, 청교도들과 더불어 회개와 중생체험을 강조하는 ‘대각성(Great Awakening)’ 운동과 설교자 Jonathan Edwards의 신학과 침례교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경건주의자들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는 선교열정에 불타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파송하였다. 이후 경건주의 신앙은 근래 복음주의 기독교로 발전하였다.

#### 슈바벤 경건주의

헤세의 고향인 독일 남서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슈바벤(Schwaben)은 독일에서 경건주의가 가장 뜨겁고 깊게 또 지속적으로 발달한 지역으로 명성이 높다. 이 지역의 경건주의는 1662년 슈페너가 튀빙엔을 방문함으로써 시작되었다.<sup>24)</sup> 대표적 역대 지도자로 Johan A. Bengel, Friedrich C. Oetinger 등이 있는데, 그들의 개혁정신의 특징은 기독교 유평피아(Christianopolis) 건설, 섬김 공동체, 특히 병든 이와 정신병자들에 대한 개인적 및 공공적 의료, 성경 및 기독교 문서 보급 등이었다. 헤세도 이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다. 헤세 고향 칼브와 그가 어려서 공부했던 괴핑엔과 마울브론, 그가 시인으로 출발한 대학도시 튀빙엔이 모두 슈바벤 경건주의의 핵심지역이다. 헤세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외조부와 부모 모두 칼브에 살면서 경건주의의 엄격한 교훈의 전통을 그대로 지킨 사람들로서, 특히 선교가 그들의 소명이었다. 헤세의 외조부와 부모가 모두 인도 선교사였고, 귀국 후 그들은 고향에서 기독교 문서 출판사를 운영했다.

#### 경건주의의 특징

슈페너는, 당시 목사들이 성령보다 ‘현학과 적절하지 않은 질문들’에 빠져 있다고 보고, 기독교는 지적 문제가 아니며, 신앙의 경험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전통과 스콜라주의를 ‘죽은 편지’처럼 보고, 궁극적 권위로서 가슴으로 느끼는 ‘심장의 종교’를 주장하였다. 그는 초대교회처럼 공동체 생활을 주장하였고, 미래의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천년왕국적 희망(chilastic vision)을 설파하였다.<sup>23)</sup>

경건주의자들은 루터와 칼빈의 주장처럼, 종교개혁의 핵심으로 신앙을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로 보았다. 경건주의는 신앙의 개인화와 내면화 그리고 종교적 교제(religious fellowship)를 중요시하였다.<sup>23)</sup> 그들은 단순한 사도적 교리문답서보다 능동적 참여를 통해 표현되는 신앙을 추구하였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리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아니라, 대신 살아있는, 숨 쉬는 경험과 관계맺음이었다. 경건주의자들은 기독교로부터 이성과 형식을 떼어내고, 그 대신 현신된 열정적이고 도덕적인 종교적 삶을 살고자 하였다. 교리적으로도 경건주의는 타락, 속죄, 은총, 영적 거듭남(중생) 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성례적 또는 교리적 정밀함보다 성서와 묵회신학을 중시하고, 종교적 현신, 윤리적 순결, 자선활동 등을 강조하였다. 실천적으로, 주관적 성령체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성경공부, 묵상과 나누기, 엄격한 자기 통제, 작

은 공동체 운동, 선교에 대한 열정적 헌신 등을 중시하였다. 그들에게 구원이란, 내적 경험이나 구원의 확신 문제라기보다, 구원받은 자가 도덕적이고 거룩하고 지속으로 성장하며 갱신되는 삶, 즉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경건주의는 너무 개인적이고 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흔히 경건주의는 신비주의, 열광주의, 도덕적 신인협력주의, 율법주의, 엄숙주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함, 내세 지향적 개인 신앙, 역사성을 무시한 주관적 신앙 등과 동일시된다. 한편 경건주의는 근대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운동인데도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즉 경건주의는 개신교 신학의 문제점을 부각시켰고, 18~19세기 신앙 부흥의 길을 열었다.

#### 어린 헤세와 경건주의

헤세는 어릴 때부터 부모와 집안, 고향 교회, 학교 등에서 경건주의 교양을 받았다.<sup>15)</sup> 특히 그는 찬송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그의 음악에 대한 조예와 시 쓰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적인 헤세는 청소년이 되면서 마울브론 신학교-바트볼 요양원-슈테텐 정신병원으로 연결되는 ‘슈와비아 경건주의 기독교 세계’와 격렬하게 충돌한다.<sup>20)</sup> 왜냐하면 그들의 대표적인 교육방법은, 헤세가 보기에는 성장하는 젊은이의 호기심, 발견 충동, 유희 충동 등을 불신하며, 억압하고, 반항적인 의지(will)를 가능한 한 초기에 강하게 꺾어, 마음에서 ‘악’을 퇴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건주의가 어린 헤세를 억압하였는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젊은 헤세가 저항하고 비판하였던 대상이 경건주의 자체인지, 경건주의를 내세운 부모나 교사들의 권위주의적 관행인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헤세의 실제 삶과 태도는 평생 매우 경건주의적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헤세가 어려서 부모와 학교로부터 경건주의를 강하게 훈육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년기 이후 그는 <약화된 이력서><sup>19)</sup>나 여러 개인적인 편지들에서 자신은 타고난 개신교도라고 언명하며,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그 독선과 분파주의에 대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헤세가 어린 시절 경건주의에 의해 트라우마를 받았다는 일반적인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 과거력

### 가족력

#### 아버지

헤세의 친조부는 당시 러시아 땅이었던 에스토니아에서 일

하던 러시아 국가소속 의사이며 매우 독실한 경건주의자이며 권위적이었다. 아버지 요한네스 헤세(1847~1916)는 다섯 번째 자식으로 에스토니아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우울한 여인이었다고 하는데, 요한네스가 4살 때 죽었다. 그래서 인지 그는 어려서부터 불안과 우울증, 그리고 고집스러움과 반항심을 보였다. 그의 아버지는 문제 많은 아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가 11살이 되었을 때 리가에 있는 친척집으로 쫓아보냈다. 이런 상실과 배척의 상황에서 그는 더욱 신앙에 집착하였으며 세속의 유혹을 두려워했다. 16세 때 목사가 되기를 선택하였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22세 때 인도 망갈로레에 선교사로 갔다. 얼마 후 건강상의 이유로 유럽으로 돌아와 5세 연상의 과부와 결혼하였다. 그는 전형적인 슈바벤 경건주의자 신학자로서 설교와 종교적 글쓰기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그는 장인의 조수로서 거의 50년 평생 동안 칼브 선교협회 출판사(the Calwer Verlagsverein)를 운영하면서 기독교 문서들을 생산하였다. 그는 평소 신경쇠약, 멜랑콜리아, 우울, 두통 등 우울 증상들의 삽화를 여러 차례 보였다. 헤세는 아버지가 들려준 에스토니아의 기독교 이야기들을 매우 밝고 즐거운 것으로 기억하여 늘 그곳으로 가보고 싶어하였다.

#### 어머니

외조부 헤르만 군데르트(1814~1893)는 외손자 헤세처럼 마울브론 신학교를 다녔던 수재였다. 그는 튀빙엔대학에서 당시 저명한 진보적 신학자 교수의 제자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거둬입의 체험을 한 후, 스승을 떠나 경건주의자가 되었다. 군데르트는 한때 인도 선교사가 되어 인도학자, 언어학자 및 학교설립자로 활동하였다. 그는 경건주의 신앙인이었지만, 해박한 지식, 개방되고 관대한 정신, 청소년 같은 신선하고 유희적인 공상, 음악, 창조적인 유머, 그리고 깊은 사랑을 가진 심성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그는 아마도 헤세가 어릴 때 칼브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었다고 한다. 특히 그의 서재에 소장되어있던 인도와 중국에 관한 책들과 이국적인 기념물들은 어린 헤세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았다. 헤세의 외조모 쥘리 군데르트는 역시 엄격한 칼빈파 신도였다. 그녀는 남편과 같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그들이 설립한 여자학교를 운영했다.

헤세의 어머니 마리 군데르트(1842~1902)는 인도에서 선교사의 딸로 출생하였다. 그녀도 어려서 강한 감정적 기질과 부모의 엄격한 양육 등으로 상실과 배척을 경험하였다. 3세 때 독일로 왔으나, 다음 해 부모는 딸을 남의 집에 맡겨 두고 다시 인도로 가는 바람에 혼자 버려졌다. 12세 때 그녀는 여학생을 위한 기숙학교에 보내졌는데, 거기서 친구에 대한 의리를 지키느라 반항하는 바람에 학교로부터 처벌받게 되었

고 다른 학교로 추방되었다. 이때 그녀는 심한 우울증을 보였다고 한다. 15세 때 그녀는 인도로 부모를 찾아 갔는데, 여행 중에 한 유부남 영국인과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의 거부로 그와의 결혼을 포기하였다. 마리는 인도에서 불행한 날들을 보내다가, 17세 때 한 선교사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거둬냄의 경험을 하고는, 자신의 미래 인생을 하나님 섬김으로 결정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간적 감정은 억제하기로 하였다. 23세 때 그녀는 인도에서 한 독일계 선교사와 결혼하고, 함께 선교 사업에 헌신하였다. 이 결혼에서 두 아들을 얻었다. 다른 한 아들은 일찍 죽어 인도에 묻혔다. 그러다가 남편은 병을 앓아 유럽으로 돌아와 죽고 말았다. 4년 후에 그녀는 칼브에 있는 친정 부모 집에서 알게 된 5년 연하의 요한네스 헤세와 재혼하여 칼브에 정착하였다. 그녀는 우울증상을 보이곤 하던 연하의 남편에 대해 보호적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관심이 컸고, 풍부한 상상력과 훌륭한 글 솜씨가 있었다. 이런 재능은 기독교적으로 채색된 서정시, 여행기,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의 전기 편찬 등을 통해 나타났다. 헤세 어머니는 역시 경건주의 기독교인으로, 신앙이 모든 것에 우선하였다. 그녀는 위대한 선교사의 모델이었던 친정아버지에 필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녀는 당연히 아들을 사랑하고 염려하였고 헤세도 이를 알았다. 그러나 많은 헤세 연구가들은 한결 같이 헤세의 부모 특히 어머니가 자신의 신앙에 의거하여, 자식들이 신의 도구로 살기를 요구하고 인간적, 감정적 요구를 묵살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헤세 어머니는 불쌍한 고아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죄의식을 느낄 여성이라는 것이다.<sup>17)</sup>

#### 형제자매

헤세에게는 누나와 누이동생 그리고 막내 남자 동생 한스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경건주의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받았다. 헤세의 누이들은 부모에 순응하여 일생동안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무난한 인생을 보내었다. 남동생 한스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기독교를 신봉하며 길으로 보기에는 안정되게 살았다. 그러나 그는 53세에 이르러, 우울증 때문에 짐작되는 바인데, 결국 자살하였다. 누나 아델레와는 헤세가 평생 동안 편지하며 가까이 지냈다. 아버지가 다른 두 형들은 헤세 가족들과 잘 어울렸으며 평범한 인생을 살았으나, 그중 한사람은 중년에 정신병에 걸렸다.

#### 개인력

##### 소아기

헤르만 헤세는 1877년 7월 2일, 독일 뷔템베르크주 슈바벤

의 한 마을 칼브에서, 한 누나에 이어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헤세는 독일 경건주의의 집안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다. 헤세 가문은 중산층으로, 지적 및 예술문화적 교양이 높은 기독교 경건주의 가문이었다. 그의 가족은 매일 집에서 시편을 암송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가정예배를 드렸다.

헤세에게는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소아시절의 '잊혀진 기억'들이 몇 가지 알려져 있다.<sup>25)</sup> 우선 헤르만이라는 이름이다. 이 이름은 두 할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특히 어머니의 첫 결혼에서 첫 아들로 태어났으나, 생후 5개월 만에 죽어 인도에 묻힌 아들의 이름이었다. 헤세가 한 살 되었을 때 Paul이라고 이름 붙여진 남동생이 태어났으나, 5개월 만에 병으로 죽었다. 헤세가 두 살 되었을 때 Gertrud라고 이름 붙여진 누이동생이 태어났으나, 역시 생후 8개월 만에 병으로 죽었다. 이런 경험은 어린 헤세에게 아마도 애도와 죄책감으로 평생 해소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큰 외상이 되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한 반응인지 몰라도 4살 된 헤세는 부모에게 자기에게 셋(Seth, 카인과 아벨의 동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헤세가 4살 때 부친이 바젤 선교사 학교의 교사가 되어 가족 모두 바젤로 이주하였다. 이때 러시아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던 헤세 부친은 스위스 시민권을 취득하였다(이후에도 헤세에게 이러한 국적 변화가 자주 있었다).

헤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예민한 감수성과 조숙한 '기질'을 보여주었고 지능과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다. 어머니는 이런 헤세의 재능을 칭찬하고 격려하였다. 이런 칭찬들은 헤세의 자기애(narcissism)의 근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헤세의 타인을 기쁘게 하는 창조적 능력을 재강화하였던 것 같고,<sup>15)</sup> 아마도 그로 하여금 13세 때 시인이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어린 헤세는 자주 고집부리고 반항하고 분노발작(temper tantrum) 같은 행동을 보였다. 어머니는 "헤세의 폭군적 정신과, 감정적 폭풍을 두려워 할" 지경이었다.<sup>18)</sup> 특히 어린 헤세는 아버지가 서재에서 일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결국 그가 6세 되었을 때 부모는 아이의 버릇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꺾어보려고, 어린 헤세를 바젤에 있는 한 기숙 유아원으로 쫓아 보냈다. 이 유아원은 해외로 나간 선교사들이 '버려두고' 간 자녀들을 돌보는 기숙 유아원이었다. 그는 기숙 유아원에서 6개월간 있었는데, 단지 일요일에만 가족을 볼 수 있었다. 집으로 데려왔을 때 어린 헤세는 창백하고 야위고 풀이 죽어 있었고, 훨씬 더 다루기 쉬운 아이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이 모습을 원만한 변화라고 환영했다.<sup>19)</sup> 헤세가 9살 때 가족은 다시 칼브로 돌아왔다. 그는 학교 다니기는 싫어하였지만, 활발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성실하며 학교 성적도 뛰어났다.

헤세에게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배척받았던 기억과 더불어 아름다운 추억도 있다. 그는 어릴 때 어머니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 그림 형제의 동화, 인도와 아프리카 선교 이야기 등을 들었다. 헤세는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들이 어린 자신을 황홀하게 만들었고 상상력을 자극하였다고 회상한다.<sup>13)</sup> 헤세는 어머니와 같이 오르간을 연주하며 찬송가를 불렀던 즐거운 추억도 가지고 있다. 헤세는 노년기에 누나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어머니의 사랑스런 이미지는 여전히 내 인생에서 가졌던 최고의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아버지에게 대한 아름다운 추억도 있다.<sup>18)</sup> 헤세가 9살 때 아버지가 그에게 바이올린을 선물로 사주어 그는 그 악기를 즐겨 치곤 했다. 교육 수준이 높았던 아버지는 헤세에게 직접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쳐 주었다. 헤세는 아버지와 다정한 시간을 가지곤 했는데, 마을 근교 강가 달빛 아래서 아버지는 헤세를 무릎에 앉히고 괴테의 시를 낭송해 주었다.<sup>16)</sup> 이후 헤세는 이 기억을 수없이 되뇌었다 한다. 헤세는 노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 촛불의 황홀함을 추억하곤 하였다.<sup>2)</sup>

헤세의 어린 시절 이런 사랑의 기억은 “배척받았다”는 기억과 더불어 부모에 대해 양가감정을 이루었다고 생각되며, 이런 양가감정적 대상관계는 이후 삶에서 거의 모든 사회관계에서 반복되었다.

#### 청소년기

헤세가 12세 때 “뭔가 악마적인 짓을 하도록 강요하는 난폭한 힘을 따를 수밖에 없어” 아버지 서재에서 무화과를 도둑질한 것이 들킨 적이 있는데, 헤세는 이 사건을 <어린 영혼>이라는 단편소설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sup>16)</sup> 즉 주인공은 혼자 숨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실망과 혐오와 거부된 죄인 내지 배반자라는 느낌과 더불어 아버지에게 대한 공포와 벽속의 악마(daemon)가 숨어있을 것이라는 상상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아버지와 세상에 대한 복수를 꿈꾼다는 것이었다. 당시 헤세는, 권위의 아버지가 자식의 잘못에 대해 처벌을 한 후 용서하고 다시 보호(사랑)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일단 처벌받고 용서받으면, 소년은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확고한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지에 대해 용서받는 그런 일은 당시에도 물론 그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13살 때, 헤세는 뷔르템베르크 주정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괴핑겐에 있는 라틴어학교에 입학하였다. 헤세도 당시 그 지역 명문가 자식들처럼 그 시험에 합격하여 마울브론 개신교 신학교(the Protestan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장학금으로 교육받고, 그 다음 튀빙엔 대학교로 진학하게끔 기대되

고 있었다. 그 길은 그가 장차 부모처럼 성직자(목사, 선교사 또는 교수)가 되는 길이였다. 그 시험을 보려면 스위스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으므로 헤세는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뷔르템베르크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국적의 빈번한 변화는 이후 헤세 정체성 혼란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헤세는 14살 되던 해 주정부 시험에 합격하여 마울브론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 학교는 중세기에는 수도원이었는데, 종교개혁 후 개신교 신학교가 되었다. 헤세는 처음에는 잘 적응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학교의 엄격한 경건주의적 훈육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당시, 남자 기숙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그 시대의 학교문화였다. <요약된 이력서>에 의하면 헤세는 13세 때부터 시인이 되고자 하였는데, 교사들이 ‘무지하여’ 그가 시인이 되는 것을 억압한다고 생각하였다. 헤세는 “학교의 어리석은 관행에 저항하고 투쟁하면, 의심, 비웃음, 모욕을 받거나, 제지되거나 체벌을 받았다.”<sup>19)</sup> 소년 헤세는 나름 시를 쓰면서 점차 험난한 길, 영웅, 강인, 의기양양, 흥분 같은 기분에 휩싸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주 의기소침해지고 불안정해지고, 불면증, 두통, 소화 장애, 복통 등에 시달렸다(이러한 기분의 변동은 양극성적 증상이다). 한편 결투요청 같은 무모한 행동 때문에 동급생들도 두려워하고 이상하다고 여기기 시작하였다. 헤세는 선생님들에게도 아주 골치 아픈 학생이 되었다. 입학한지 불과 6개월 되었을 때 15세 헤세는 갑자기 학교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요약된 이력서><sup>19)</sup>에 의하면 “시인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내면으로부터 격정이 엄습하여”, 그 ‘암굴(dungeon)’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는 들판에서 외투도 입지 않은 채 밤새도록 추위에 떨었다. 경관들이 거의 하루 동안의 수색작업을 한 끝에 그를 붙잡아 학교로 데려 왔다.

선생님들과 부모는 그를 ‘정신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정신요양원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부모는 헤세를 바트 볼(Bad Boll)에 있는 ‘영적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치유기관(Heilanstalt für Patienten mit Seelischen Störungen)’으로 데려갔다.<sup>20)</sup> 어린 헤세는 입원 당시 흥분상태에서 반항과 분노를 여과 없이 표현하였다. 서서히 흥분상태가 심해져가던 중 헤세는 8년 연상의 한 처녀에게 열렬하나 일방적인 사랑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그 여성은 그를 거절하였고, 주위 사람들도 그 사랑에 대해 반대하였다. 헤세는 절망에 빠져, 돈을 빌려 권총을 사고(당시 독일에서는 쉽게 권총을 살 수 있었다), 자살하겠다는 위협의 글을 남기고, 요양원을 탈출하였다. 이 소동 때문에 그는 “드디어 악마에 사로잡혔다”는 평가를 받고 요양원에서 퇴원 당했다.

어머니는 헤세를 다시 슈테텐 정신요양원(Nervenheilstetten)으로 데려갔다.<sup>20)</sup> 그 정신요양원은 이전부터 기도와 예배에 의해 기적적으로 정신병 환자들이 나오면서 유명해진 곳이었다. 어린 헤세는 자신을 감옥에 가둔다고 하면서 격렬하게 입원에 저항하였다. 그리고는 아마도 경조증적인 흥분상태에서 그랬다고 보지만, 헤세는 집요하고 신랄하게 부모와 기독교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헤세는 퇴원을 요구하면서 자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약 3개월 만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듯하여 헤세는 퇴원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헤세는 곧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금 격렬하게 흥분하고, 반항하고, 욕을 하는 등 ‘무시무시한 증오’를 보였다. 헤세는 퇴원 보름만에 재입원되었다. 헤세는 극도로 실망하여 아버지와 온갖 권위와 아버지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 전체에 대해, 청소년이라기에 너무나 지적으로 날카롭게 공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헤세는 1892년 9월 14일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아버지께 보냈다<sup>20)</sup> : “존경하옵는 당신께! 당신께서는 유별나게 기꺼이 희생하는 태도를 보이시니, 제가 당신께 7마르크나 권총을 부탁해도 되겠지요. [...] 사실 저는 6월에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요. [...] ‘아버지’는 이상한 단어이며, 저는 그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그런 사람을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당신이 제게 조언을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 제가 인간이 아니라 경건주의자라면, 또 저의 모든 성격과 성향을 지금과는 정반대로 바꾼다면, 저는 당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으며 또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헤세 씨, 당신이 제게서 삶의 기쁨을 앗아가 버렸으므로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사랑스런 헤르만’이 전혀 딴 사람, 즉 세상을 증오하는 자, ‘부모가 살아있는 고아’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제게 편지를 보낼 때 ‘사랑하는 H.’와 같은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쓴다면 그건 뻔뻔스러운 거짓말이겠지요. [...] 여하튼 당신께서 이따금씩 이곳에 들러 주셨으면 좋겠군요.” 이 편지는 헤세 평생에 걸쳐 내면에서 작동하게 될 정신역동적 특징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증오, 자살, 경건주의 거부, 아버지(환경) 탓하기(피해의식) 등을 나타내고 있다. 몇 개월 만에 헤세는 “자제심과 순종을 보여주어” 이제 다시 학교에 다녀도 될 것 같고 또한 그의 간절한 소망에 부응해서, 부모는 퇴원을 허락하였다. 헤세는 이후 슈테텐에 대해, 단조로움의 억압, 미친 사람들, 반쯤 짐승인 사람들 등 두려움과 혐오로 회고하

고 있다(이런 기억은 나중 정신분석과 자신의 분석가들에 대한 양가감정적 태도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헤세는 슈테텐을 나온 후 다른 요양원과 다른 학교를 전전하다가, 16세 되던 해 김나지움(중고등학교) 7학년 수료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그의 공식적인 학교교육은 종결된다. 그 후 그는 술집을 드나들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빈둥거리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부모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였다. 그는 한동안 사회주의자가 되고자 하였고, 또한 막연한 꿈으로 브라질로 이민갈 것을 계획하기도 했다. 17세 때 헤세는 근처 마을에 슬링겐에서 서점 점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나 3일 만에 그만두었다. 그러다가 칼브에 있는 교회탑 시계를 만드는 페로트(Perrot) 공장에서 견습공으로 1년 반 동안 일하였다. 육체노동이 비로소 그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성인이 되었어도 그는 정원일 같은 육체노동을 즐겨했다). 여가 동안 헤세는, 외할아버지 군데르트의 조언으로, 그가 소장하고 있던 책들을 호기심을 갖고 읽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모에게 집을 떠나게(자유롭게 문학적 생애를 준비하게)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다.

#### 청년기

헤세는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 18세 되던 해,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드디어 집을 떠날 수 있었다. 그는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고, ‘아버지의 주선’으로 튀빙엔의 헤켄하우어(Heckenhauer) 서점에서 견습점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튀빙엔 대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들을 만나면서 대학생활을 비판하면서도 부러워하였다고 한다.<sup>26)</sup> 그는 사회적으로 비사교적이었으며 아웃사이더로서, 소심하고 외로운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5~6명의 마음 맞는 대학생들과 Petit cenacle이라는 독서모임을 결성하고 같이 공부하였다. 그들은 평생 친구가 되었다. 헤켄하우어 서점에는 수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었는데, 헤세는 그 책들을 읽음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였다. 이러한 ‘공부하기’는 헤세 평생의 특징 중 하나이다. 튀빙엔 시절에 헤세는 부모에게, 기독교를 비판하면서도, 때때로 성경과 신학서적을 읽고 그 의미를 새로이 숙고하기도 하고, 교회에 출석하여 찬송가를 부르기도 한다는 편지를 보내었다. 이처럼 헤세는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과 현실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마음 사이의 어느 지점에, 즉 양가감정적 상황에 있었다.<sup>3)</sup>

헤세는 19세 때부터 시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그의 시들은 당시의 신낭만주의 양식으로, 그 주제는 아름다운 추억, 그리움(동경), 전원에서의 행복, 짝사랑, 반항, 분노, 참

음, 슬픔, 죽음, 찬송가 등이었다. 이 시들의 주 내용은, 과거 자신이 사랑했던 마리아(어머니 지칭), 여왕(어머니 지칭), 또는 Gertrud(죽은 여동생 이름)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여성들을 환상 속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다. 이때 헤세의 낭만적 시작은 당시 사조를 반영한다기보다 자신의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기억과 그때의 트라우마를 마스터하는데 있었다고 보인다. 죽은 누이와 어머니에 대한 죄의식은 당시 소설 〈헤르만 라우서〉(1901)와 〈페터 카멘친트〉(1904) 등에도 반영되고 있다.<sup>26)</sup>

21세 때, 헤세는 자신이 성공했다는 의미로 자신의 시집 〈낭만적인 노래〉를 부모에게 보냈다. 헤세의 어머니는 그 자신이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들의 시에 대해 외적 구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이해심 있게 수용했으나, 헤세의 시에 ‘보다 높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어머니는 성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서, 그의 시가 너무 멋대로이고 속되다고 평가하였다. 두 번째 편지에서 어머니는 “너 자신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리고 너무 음란스럽지 않도록 해라”라고 충고하였다. 헤세는 분노하여 어머니의 편지를 불태웠다고 한다. 이후 헤세는 어머니와 화해하려 했으나 어머니는 거절하였다. 이후 헤세는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감정적으로 단절하였다. 그는 부모와의 분리감, 사랑받지 못함, 그리고 고독을 느껴야만 했다.

22세 때 헤세는 다시 아버지의 주선으로 바젤로 옮겨 차례로 두 서점에서 4년간 일하였다. 그러면서 문학, 철학, 종교 등에 대해 독학을 계속하였다. 그 당시 부르크하르트(Jakob Burckhardt)의 역사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 사이 잠깐씩 고향에서 지내기도 했다. 튀빙엔 시절에 운동적이었던 헤세는, 이제 따뜻한 바젤에서는, 지식인들과 예술가들과 어울리는 등 사교적으로 변하였다. 술을 마시고, 자주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sup>1)</sup> 문학적으로도 바젤 시대는 헤세에게 가장 충만한 낭만적인 시기였다.<sup>1,24)</sup> 그의 1400여 편의 시 중에 1/3이 이 시기에 쓰여 졌다(임상적으로는 경조증적인 상태로 추측된다). 당연히 부모는 헤세의 ‘세속적’인 시에 대해 침묵으로 무시하는 반응을 보였다. 헤세와 부모(특히 어머니)와의 편지 교류는 뜸해졌다. 23세가 된 헤세는 ‘독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의식하여, 독일 영사관에 군 복무를 신청하였으나, 눈이 나쁘다는 이유로 군복무를 면제 받았다. 이 눈병은 우울증, 두통, 불면증 등과 더불어(노년에는 류머티즘 통증까지) 헤세를 평생 괴롭혔다. 이즈음 헤세의 아버지가 다른 형 Karl Isenberg가 정신병에 걸려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때 헤세는 이 비극에 대해, 자신의 과거 경험 때문인지, ‘이상하게도’ 무심한 듯하였다 한다.<sup>1)</sup>

25세 때 오랜 고통스런 지병을 앓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헤세는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자신의 청소년 시절 보였던 우울증(양극성 장애)이 다시 촉발될까 두려워, 또는 상실의 느낌으로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sup>6)</sup> 같은 해 헤세는 〈시집〉(1902)을 출간하였는데, 그는 이 시집을 죽은 어머니에게 헌정함으로써 그의 사랑을 표현하였다.

헤세는 표면상으로는 생활에 만족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기분은 지속적으로 양극성적 주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때때로 사교적 활동, 번잡스런 공공사회와의 관계 등에 대한 무언가 모를 저항감을 느꼈다. 헤세는 ‘도피’하는 기회를 가져야만 했다. 그는 곧잘 혼자서 또는 몇 사람의 친한 친구들과 함께 근교로 또는 알프스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다. 1901년 첫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고, 이후 1914년까지 7번의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다. 헤세는 이런 여행을 ‘도주’라고 일컬었다.<sup>2)</sup> 그리고 1911년에는 그 유명한 ‘인도여행’을 하였다.

헤세는 이탈리아 여행의 산물로서 27세 때부터 8년간 성 프란체스코를 포함한 8편의 성자들의 이야기를 썼다. 이야기 내용은 전형적으로 사막의 수도자들이 신에게 바쳐진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악마들이 유혹하는 여자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호의적인 천사들의 보호를 받아 이를 물리친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 헤세의 성적 갈등을 시사한다. 특히 그는 사랑과 믿음의 성인이면서 짐승이나 꽃과 대화했다고 하는 신비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에 대해 심취하였다. 이는 당시 헤세가 니체의 도덕성보다, 성 프란체스코의 ‘죄인’이면서 성자’로서의 신비한 모습이 자신의 도덕성과 미학적 감수성에 더 잘 맞는다고 느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즈음 출판한 〈페터 카멘친트〉(1904)는 이탈리아 여행의 산물로서, 상처받은, 토착성과 방랑성, 자연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사이의 방향이 그러지고 있다. 프로이트도 이 소설을 칭송하였다 한다. 이 소설 주인공은 마지막에 아버지를 돌보려 귀향하는데, 따라서 이 소설은 아버지를 향한 화해의 제스처라고도 한다. 헤세는 이 소설로 유명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서점 일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되었다. 그는 작가로서의 성공을 자신이 무능력자나 허풍쟁이가 아니라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파멸에 가까운 학창 시절과 성장기의 괴로움’과 ‘많은 혼란’과 ‘희생’을 겪은 후 ‘싸움에서 승리’하고 ‘목표달성’을 이루었다고 말한다.<sup>19)</sup>

그가 동년배의 여성과 사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04년 27세에 헤세는 9세 연상인(어머니와 같은 이름의) 마리아(Maria Bernoulli, 1868~1963, 애칭 미아)와 결혼하였다. 헤세는 약혼사실을 늦게까지 자신의 가족에게 감추었는데 아마도 그녀의 나이 많음과 외모(작은 키에 넓은 얼굴과 검은 머

리) 때문이었다고 한다.<sup>1)</sup> 장인은 그들의 결혼을 반대하였고 이후에도 내내 헤세에게 냉담하였다. 결혼한 헤세 부부는 콘스탄츠 호수(별명 : 보텐제) 호반의 가이엔호펜으로 이사하였다. 그들은 소박한 농가에 살면서 세 아들들을 낳았다. 가이엔호펜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헤세는 유쾌한(자신이 평소 비판하던) 부르조아적 전원생활을 즐겼다. 여러 친구들이 찾아와 공동체처럼 이웃에 모여 살았다.

그는 자유로운 전업 작가로서 여러 신문과 잡지에 글을 기고하였다. 헤세는 독일의 문학 전통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지만, 당시 빌헬름 황제의 독일 제국과 도시 베를린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절에 헤세는 도스토옙스키, 쇼펜하우어, 신지학(theosophy), 신비주의, 동양사상 등을 공부하였다. 헤세의 관심사에 이해를 보였던 아버지는 중국 사상을 소개하는 책들과 독일어판 <역경>을 헤세에게 보내주었다. 29세 때 헤세는 칼브의 부모 집에 머물면서 <수레바퀴 아래서>(1906)를 썼다. 이는 당시 유행하던 경향적인 '학교소설(Schuleroman)'로서, 헤세 자신의 학창시절의 억압받고 탈출했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작가의 분신인 주인공 중 한 명은 자살하고 다른 한 명은 학교를 탈출한다. 당연히 이 소설은 당시 학교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여러 전기에 의하면 헤세 부부 간의 갈등이 악순환하면서 점차 아내 마리아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미아는 헤세보다 9살 연상인데다, 그 성격이 차분하고 무뚝뚝하고 고집이 세고 무취미하였다. 헤세는 까다롭고 변덕스러웠다. 상호 적응이 어려웠다.<sup>3)</sup> 헤세는 가정 일에 무심하였고, 부인은 헤세의 글쓰기에 무관심하였다. 점차 사소한 일에서 서로 과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부부관계가 악화일로로 걸으면서 부인은 더욱 더 가사일과 아이들 문제 그리고 음악에 몰두하였고, 헤세는 친구 만나기, 음악회 가기, 강연을 위한 여행 등 자주 '도피'하였다. 그러는 사이, 부인은 점점 자신 속으로 고립되어 갔다. 결국 부인에게 정신병적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헤세는 점차 정작성, 평온하지만 지루한 '소시민적인 안락', 아내와 아이들 문제 등 때문에 자신이 정작 해보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었다. 그는 공공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미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우울해지고 지루함과 고독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당시 헤세의 우울한 기분은 시 <안개 속에서>(1905)에 표현되고 있다.

#### 우울증의 삽화들

진작부터 헤세는 눈병 이외에 불면증, 두통, 불안과 우울감, 건강염려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30세 때, 헤세는 친구들과 여행 중에 만난, 방랑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던 인도

구루의 풍모를 가졌던 Gusto(Gustav Gräser)를 만나 그의 소개로 아스코나의 몬테 베리타(Monte Berita) 요양원에 입원하였다. 그는 거기서 '대안적 공동체적 삶'을 살면서 알코올 금단치료를 받았다.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한다. 33세 때는 헤드비히(Hedwig) 온천요양원에 입원하였다. 원장 Albert Fraenkel은 헤세에게 "질문과 관찰에 의해 어긋난 정신을 바로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 줌으로", '창조적 위기'에 대한 정신치료와 요양치료를 하였다.<sup>1)</sup> 이 치료로 헤세의 불안이 상당히 해소되었다, 헤세는 이곳을 House of Peace라 불렀다. 이 경험은 나중 정신분석을 받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우울증에서 회복한 헤세는 다시 문학창작 활동에 활기를 되찾았다. 헤세는 30~35세 사이, 고향 칼브의 가난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자연 등을 그린 다수의 이야기들을 출판하였다. 이처럼 헤세의 작가로서의 활동 첫 15년의 작업은 바로 자신의 소아청소년기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그때의 체험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고통스러운 정도로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일이었다.<sup>2)</sup> '잃어버린 시간'이란 부모의 사랑을 바랐지만 거부되었다고 느껴 방황하였던 시절이다. 헤세는 칼브라는 고향과 고향의 이웃사람들을 그의 마지막 소설 <유리알 유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문학 속에 엮어 넣고 있다.

인도여행을 다녀 온 이듬해 35세 때 분위기를 바꾸어 보기 위해, 스위스 베른으로 이주하였다. 당시 소설 <게르트루트>(1910)와 <로스할데>(1914)는, 헤세 자신처럼 예술가적 기질 때문에 사랑 또는 결혼에 실패하는 이야기이다. 이후 헤세는 더 이상 낭만적인 남녀 사랑 이야기는 쓰지 않는다. 1차 세계대전과 가정적 불행의 와중에서 헤세는 <크눌프-크눌프의 생애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1915)를 출판했다. 이 소설은 주인공 크눌프가 성 프란체스코처럼 방랑하면서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 이야기이다. 이 소설로서 헤세의 낭만주의 시대는 마무리 된다.

## 용 분석

#### 정신분석 수용

헤세는 자신의 우울증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이전부터 정신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이트, 융, Alfred Adler, Wilhelm Stekel, Eugen Bleuler 등의 저서들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는 정신분석이 인간 존재의 어두운 면, 즉 무의식을 존재의 기초로 본다는 것 때문에 관심을 가졌다. 헤세는 융의 종교적 기질에 비해, 프로이트의 의학적 및 과학적 태도에 더 호감을 가졌다.<sup>10)</sup> 그는 "융의 글은 프로이트의 글처럼 그런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한다"고 하며 저술

에 관한 한 용보다 프로이트를 더 높이 평가하였다.<sup>3)</sup> 헤세는 프로이트에 대한 강한 인상으로 정신분석을 받기로 하였으나, 정작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는 용 분석을 선택하였고, 이후 삶과 문학에서는 용의 영향을 더 받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헤세는 자신의 우울증에 대해 어떤 그럴듯한 설명이 필요했는데, 무신론자인 프로이트의 어두운 비극적 이론보다, 용의 긍정적인 종교심리학 이론이나 상징화 이론, ‘중년기 우울증’과 그 미래지향적 및 목적론적 치료방법에 대한 이론 등이 헤세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해주었을 것이다.

### 랑의 분석 치료

헤세는 39세 때 1916년 4월 루체른 존마트(Sonmatt) 병원에 입원하였다. 헤세는 병원에서 가벼운 전기충격, 일광욕, 수치료(hydrotherapy) 등 각종 요양치료를 받으면서, 시내에 개업하고 있던 정신과의사 랑(Josef Bernhard Lang, 1881~1945)에게서 용 분석을 받았다. 랑은 용의 제자이자 동료 연구자였다. 헤세는 3시간의 세션을 12회 가졌다. 6월 초 퇴원한 후에도 1주일에 한 번씩 베른에서 루체른으로 랑을 찾아가 3~6시간씩 분석 세션을 가졌다. 그들은 정신분석 동안 프로이트와 용 이론, 성서 이야기들의 신화적 의미, 랑의 개인적 의견 등에 대해서도 대화하였다. 헤세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치료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sup>27)</sup> 처음에 랑의 권고로 헤세는 자신이 꾸는 꿈을 그리다가 1917년부터 자연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이는 아마도 용 정신분석에서 자연을 전체성의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그림에 사람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 정신분석에 대해 칭송

헤세는 1918년 〈예술가와 정신분석〉<sup>28)</sup>이라는 신문기고를 통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대해 칭송을 표하였다 : 첫째, 정신분석은 인간 삶에 대한 판타지의 의미를 인식하기 때문에 시인들에게 자신들의 울음을 입증해 주고, 순수한 지적 활동의 영역을 해방시킨다. 둘째, 예술가는 평소에 의식 아래(무의식)에서 작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정신분석을 통해 의식의 세계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무의식이 창조의 근원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신분석은 우리가 방금 가장 성공적으로 우리 안에 억압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진실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검토하게 하고, 진지하게 다룰 것을, 즉 정직성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헤세는 예술가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 무의식으로부터 밀려오는 것에 대해 억압하지 말고, (생략) 은밀한 샘으로의 사랑 가득한 잠복. 그런 다음 비판과 혼돈으로부터 선택해야 한다. 이 기고문의 마지막에 헤세는 “어떤 기술이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도

울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신분석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기고에 대해 프로이트는 감사를 표하였다.

### 용 분석의 영향

1916년 처음 용 분석을 받으면서 헤세는 치료에 크게 만족하였다. 헤세는, 죄와 악에 대한 용의 이론에 자신의 우울증을 비추어 설명과 위로를 받았고, 그 이론으로 자기 신뢰(self-reliance)를 재확인(합리화)하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졌다. 그 결과 우울증이 경감되고 활기와 생산성이 회복되었다. 헤세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용의 분석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영지주의, 종교적 신비주의, 동양의 종교사상들 등에 대한 지식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후 10여 년간 용 분석을 받음에 따라 헤세의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견해가 크게 바뀌었다.<sup>10)</sup> 용 분석을 통해 그는, 이미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지만, 내적 자기의 중요성이 유일한 현실임을 확인하였으며, 자기실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아웃사이더로서의 정체성을 지지받을 수 있었다. 정신분석을 통해 인간으로서 그동안 억압하여 왔던 ‘관능적인 삶’이 허용되고 확대되었다. 그는 개인적 진리와 인류문화의 전통적 요소들이 보편적 무의식적 정신, 즉 God-nature에 기반한다는 통찰도 수용하였다.

용 분석은 그의 문학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 헤세는 정신분석을 통해, 유미주의나 낭만주의가 내면의 문제를 억압하고, 반대로 밝게 선하게 긍정적으로만 그리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낭만주의 문학을 지속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다른 문학을 써야만 했다. 헤세는 용 분석 경험을 곧바로 〈어려운 길〉(1916), 〈꿈의 결과〉(1916) 등 글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헤세가 분석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쓴 〈정신분석 동안의 꿈 일기〉도 썼으나, 헤세 사후 세 번째 부인인 니논에 의해 1996년에 비로소 공개되었다.<sup>3)</sup> 또한 헤세는 용 분석을 받으면서 체험하고 이해한 바를 자전적 소설로 소설화하였다. 과거 헤르만 라유서, 페터 카멘진트, 크눌프 등 헤세 소설의 주인공들은 어머니-자연(mother-nature)과의 합일을 추구하며 세상을 방랑하였으나, 이제 새로운 유형의 주인공들이 등장하여 자기(the Self)를 추구하며 ‘내면으로의 길(Weg nach Innen)’을 갔다. 이때의 대표적 소설 〈데미안〉(1919)은 용의 원형이론, 상징이론, 및 개성화 이론에 기초하여, 청소년이 죄의식을 극복하고 내면의 자기를 찾아가는 자신만의 길, 영원한 어머니에의 갈구, 영지주의(gnosticism),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파괴 후 새로운 세상을 재건하는 천년왕국적 희망과 선택된 사람들의 사명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헤세가 창조적 상상으로 분석심리학과 경건주의를 결합하는 과정으로 보여준다. 〈클라인과 바그너〉

(1919)의 주인공은 부인을 죽였다는 죄의식으로 남쪽으로 도망하여 창녀의 도움을 받는데, 결말에 물에 빠져 죽는 순간 열반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소설에는 프로이트 이론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 <클링조르의 마지막 여름>(1919)은 죽어가는 주인공이 걱정을 토로하며 성자와 죄인의 양극성을 통합하려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 헤세는 동화(Märchen) 작가로서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는데, 자연적인 것들과 초자연적 것들을 환상 속에서 유쾌하게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다.<sup>9)</sup> 특히 <붓꽃>(1917)은, 부인 마리아에게 헌정된 동화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프로이트 정신분석적 우화로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이러한 헤세의 소설들은 독일 전통의 성장(교양) 소설로 보이지만, 내면을 분석하고 의식화하고, 내적 결단이라는 주제에 비중을 두는 새로운 유형의 가장된 서정시(disguised lyric)가 되었다.<sup>1)</sup> 종합적으로 융의 정신분석으로 헤세 문학은 보다 상징적 내지 신비적으로 되었고, 초현실주의적 내지 표현주의적 스타일로 변화되었다.<sup>10)</sup>

#### 요한네스 놀의 치료

헤세는 1918년 초 베른에 있는 자칭 분석가인 놀(Johannes Nohl, 1882~1963)에게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다. 놀은 문필가이며 일반인 분석가로서, Otto Gross에게 분석을 받았으며, 프로이트를 찬양하며 스스로 그의 추종자로 자처했다. 놀은 프로이트 사상과 무정부주의 등을 혼합하여 자신의 이론을 만들었다.<sup>29)</sup> 그는 1907년 몬테 베리타에서 예술가들의 공동체 모임 때, 헤세와 만나 자신의 사상을 헤세에게 전해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상당기간 이루어진 놀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헤세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 혼자 몬타놀라로

헤세의 부인 마리아는 정신상태가 악화되어 오다가, 1918년 즈음 완전히 정신병적이 되었다. 헤세는 그녀를 융이 일하는 Kusnacht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셋째 아들 마르틴도 뇌병으로 입원하였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들은 기숙학교, 보육가정, 친지의 집 등을 전전하였다. 혼자된 42세의 헤세는 1919년 초까지 베른의 추운 집에서 혼자 외로이 지냈다. 그런 헤세를 정신분석은 과감하게 행동하게 해 주었다. 그는 이제 가정과 사회에 얽매이기보다 '내면에 충실한 자신'이 되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는 가정을 버리고 베른을 떠나기로 했다. 1919년 4월 중순에 42세의 헤세는 혼자서 이탈리아 문화권인 루가노 인근에 있는 전원마을 몬타놀라(Montagnola)로 내려갔다. 그는 어려서부터 일생 동안 따뜻한 남쪽을 동경하였는데, 이번에는 알프스를 넘어 더 남쪽으로 갔다. Mileck<sup>2)</sup>은, 사람들이 이때 헤세가 가족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였다. 이때 랑이 의지할 데 없었던 헤세의 '의사이자 친구'<sup>30)</sup>로서, 헤세를 도왔다. 그는 헤세에게 각종 요법을 시행하고, 규칙적으로 몬타놀라로 약들을 보내었고, 헤세의 부탁으로 베른에 남은 헤세의 세 아들들의 거처 문제를 조정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부인을 방문하기도 하고 돌보며 그녀의 입원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 경조증 상태

그때까지 헤세는 가벼운 우울증 주기 사이에 정상적 기분이거나 다소의 경조증적 상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몬타놀라에서의 첫해인 1919년에 헤세는 가히 경조증적 증상 또는 융이 말한 팽창(inflation)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 알프스 남쪽 몬타놀라는 어릴 때의 칼브처럼, 그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 그는 자연의 빛나는 풍경에 경이와 환희와 더불어 남쪽의 관능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헤세는 홀로 자유로운 삶을 즐기기 시작하였다.<sup>2)</sup> 그는 "1919년 9월까지는 내 생애 가장 풍성하고 부지런하고 불타듯 강렬한 시기였다. ... 나는 수백장의 스케치와 그림을 그렸다. 많은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하고, 두 번의 러브어페어가 있었고, 밤이면 와인동굴을 전전하며 취하도록 포도주도 마셨다. 그러는 동시에 나의 촛불은 끝까지 탔다"라고 말한다.<sup>5)</sup> <클링조르의 마지막 여름>은 정신분석에 의해 내면이 자극되면서 나타나는 흥분상태를 묘사하는 것 같다: "병은 이제 지나간 것 같다. 나는 죽지 않았고, 지구와 태양이 나를 위해 회전하고 있는 것 같다. ... 다시 한번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헤세는 열정에 넘쳐 쉬지 않고 글을 썼다.

<차라투스트라의 재래>(1919)는 헤세가 <데미안>에서 시사한 자신의 사회적 사상을 니체의 차라투스트라의 이름을 빌려 표현한 것이다. 즉 독일을 전쟁으로 내몬 광신적 애국심을 비판하고, 세계대전으로 이전의 노쇠한 정치적 제도는 붕괴된다고 보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해 청소년들을 각성시키고자 하였다.

#### 융의 분석치료

##### 우울증 재발

헤세는, 짧은 경조증적 시기가 지나고 <싯다르타>의 제1부에서 제2부로 집필이 넘어가는 시점, 즉 1919년 후반에 다시 우울증에 빠졌다. 랑의 정신분석은 반복되는 재발을 막지 못했다. 짐작되는 재발의 이유는 부부관계의 파탄과 지속되어온 신체통증, 그리고 그의 자유로운 은둔이 불러온 경제적 궁핍과 미래의 불확실성이었다. 또한 <싯다르타> 전반부(주인공의 돈벌이, 창녀와의 관능적 생활, 순례, 금욕적 수도생

활 등)는 헤세 자신의 지난 경험을 기초로 순조롭게 쓰여졌지만, 변환(transformation)의 과정, 즉 헤세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깨달음의 순간을 써야 할 지점에서 더 이상 쓰기가 막혔다.<sup>1)</sup> 헤세는 다시 좌절과 우울증에 빠져 1년 반 동안 거의 글을 쓰지 못한 채 지냈다. 그는 술로 자신을 달래기도 하였다. 이때 스위스의 친구들이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당시 다다이즘 운동을 하고 있던 Hugo Ball 부부를 만나 같이 극장, 카바레 등으로 어울려 다녔다. 이런 활동들은 헤세가 평소 내심 바랐지만 감히 해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이처럼 헤세는 늘 변화를 원했지만 정작 변화하기는 망설이는 사람이었다.

### 응의 분석

1917년 40세 때 헤세는 응을 처음 만났다. 이때 헤세는 응에게서 매우 강한 인상을 받았지만, 응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한다. 응이 헤세에게 준 강력한 인상과, 〈상징과 리비도〉같은 응의 저서들에 대한 독서는, 위기에 빠진 헤세의 관심을 프로이트에서 응으로 옮겨 가게 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헤세는 1921년 2월 취리히에서 창립된 분석심리학회에 초청강연을 갔을 때, 응에게 요청하여 응의 자택에서 직접 수차례에 걸친 분석을 받았다. 그해 5월 헤세는 다시 한번 더 응의 자택으로 찾아가 분석을 받았다. 헤세는 응의 분석치료의 효과에 대하여 크게 만족하였고, 응의 인품과 치료기술에 감명을 느꼈다. 당시 헤세는 응을 천재라고 칭송하였다. 1921년 5월 친지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현재 나는 어렵고 종종 거의 견딜 수 없는 삶의 상황 가운데 응에게서 분석의 충격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피 속으로 들어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발전하게 해 줍니다.”<sup>7)</sup> 이때의 정신분석으로 아마도 헤세는 반항하는 아들 때문에 겪는 아버지의 고통을 통찰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는 주인공 싯다르타가 겪은 유사한 에피소드를 통해 표현된다. 우울증에서 회복한 헤세는 1921년 연말부터 다시 활발한 글쓰기를 시작하여 〈싯다르타〉(1922) 집필을 완료할 수 있었다. 당시 〈도덕경〉을 읽었던 것도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는 그에게 ‘해방적인 체험’을 가지게 해 주었다.<sup>2)</sup> 〈싯다르타〉는 인도철학이나 중국사상이 서구적 시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싯다르타의 메시지는, 구원은 단순히 지식이나 삶이 아니라, 비이기적(selfless) 삶에서 엄격한 수행(discipline)을 통해 얻어지는 영적 경험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그의 가문이 말미 아닌 실제 삶을 통해 보여준 경건주의와 상응하는 것이다.<sup>1)</sup> 이 소설로 헤세는 젊은 독자들에게 동양적 현자로 인식되었다.

### 삶의 문제들

헤세는, 1919년 처음 몬타놀라에 왔을 때 20세 연하인 젊고 미모인 성악가 뱅어(Ruth Wenger, 1897~1994)와 알게 되었다. 그녀는 헤세에게 남자로서보다도 예술가로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마리아와 별거 중이던 헤세는 그녀와 바로 사랑에 빠졌다. 그들의 ‘비현실적’인 사랑은 4년간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1923년, 46세의 헤세는 양심의 가책에도 불구하고 그의 늙고 병든 아내 마리아와 이혼하였다. 그리고 6개월 후, 1924년 헤세는 뱅어와 결혼하였다. 뱅어 부모도 마지못해 승낙하였다. 헤세는 자신이 늙고 병들었고 고독을 좋아한다는 사실 때문에 결혼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였다. 조만간 뱅어는 변덕이 심하다는 것, 친정가족과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 애완동물을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그녀에게 결핵이라는 병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결혼생활은 곧 불행해졌다.

1924년 헤세는 스위스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국적 변화는, 헤세가 추운 위협적인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 따뜻한 남쪽 다문화사회이며 중립국인 스위스로 도피하고 거기서 모성적 보호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헤세는 가정 꾸리기, 전부인의 치료비, 자식 키우기, 여행, 사고, 위안과 치료 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 그의 수입원은 인세와 강연료였다. 그는 마지못해 응했던 강연여행에서 죄의식을 가지고 돌아왔고, 몹시 피곤해 하였다. 그는 1920년대부터 자주 요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즈음에는 주로 취리히 인근 바덴에서 온천 요양을 하였다.

당시 바덴에는 동생 한스도 살고 있었다. 그는 공장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성공한 형에 비해 불우하였다. 더구나 그의 부인이 결핵에 걸리면서 그는 버려진 느낌에 시달렸다. 헤세는 남자 친구들과의 관계는 좋았지만 동생에게는 자상한 형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끔 만났지만 형제간의 관계는 어색하고 의례적이었다.<sup>1)</sup> 동생 한스도 헤세와 비슷한 우울기질이 있었는데, 결국 1935년 53세 때 자살하였다. 헤세는 그들 형제들의 고통의 공통적인 원인으로 유년시절에 경험한 경건주의의 억압적 교육을 지적하고 있다.

### 다시 랑에게로

#### 다시 우울증

뱅어와의 결혼생활은 결코 안정적이지 못했고, 이내 고통스러워졌다. 헤세는 뱅어와 별거하고 혼자 지냈다. 48세에 이르러 헤세의 우울증이 악화하여 이내 최고조에 달했다. 헤세는 취리히의 한 작은 방에서 혼자 살면서 걱정과 불면증과 자살 생각에 시달렸다. 정신적인 고통 외에도 눈의 통증,

심한 류머티즘 통증 같은 육체적인 고통도 뒤따랐다. 헤세는 평소 수줍어하는 아웃사이더이었지만, 이즈음 갑자기 돌변하여 관능적 삶을 열망하며 술집과 댄스홀을 출입하고, 재즈를 즐기는 등 극적인 변신을 보이곤 하였다. 헤세는 마치 〈황야의 이리〉의 주인공 하리 할러 같이 굴었다. 그는 천재(창조)와 광기(퇴행) 사이의 꿈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다.

#### 랑의 분석 치료

헤세는 결국 다시 랑에게 도움을 청해 1925~1926년 분석을 받았다. 헤세의 정신분석에 대한 흥미는 줄었으나 우울증 때문에 치료는 계속 받았다.<sup>10)</sup> 두 사람은 매일 밤 긴 대화를 나누었다. 랑은, ‘황야의 이리’의 겨울을 지나는 동안 헤세에게 가장 중요한 의지할 기둥이자 조연자이었다.<sup>30)</sup> 랑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우울증이 호전하였다. 헤세는 2년 동안 랑의 도움을 받아가며 〈황야의 이리〉(1928)를 썼다. 이 소설은 융 분석심리학이론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1920년대 헤세가 경험하고 있던 ‘이리 같은 성적 및 공격적 본성(nature)과 무소속성(homelessness)’과 ‘인간성(또는 인간 정신 즉 Geist) 간의 갈등(프로이트의 이드와 자아 간의 갈등 같아 보인다)과 당시 유럽의 ‘시대의 병(사회의 노이로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마술극장’이라는 환상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성적 충동과 공격성을 엿보는 무의식의 지옥을 경험하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초현실주의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당시로서는 전위적인 문학이었다. 그러나 주인공이 연인 헤르미네(주인공의 아니마의 의인화)를 살해하는 환상과 재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 시기의 헤세의 고통은 시로도 표현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비참함, 자기연민, 죽음, 위기, 분노, 피해의식, 냉소, 혐오 등 매우 과격하였다.<sup>2)</sup> 이는 헤세가 청소년기에 부모와 학교에 대해 나타내었던 반항을 이제 사회적 일상에 대고 토로하는 것으로, 염세적 반항<sup>10)</sup> 또는 일종의 정신적 정화과정을 보여주는 것<sup>31)</sup>이라는 비평을 받는다. 이 시들은 나중 〈위기〉(1928)라는 시집으로 출판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헤세의 ‘미래 추정적 자서전’인 〈요약된 이력서〉 제4판(1927)<sup>19)</sup>이 발표되었다. 이 글의 끝은, 늙어 70세가 된 자신이 한 젊은 여성을 성희롱했다는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 간헐했는데, 벽에 그림으로 그린 기차를 타고 탈출하여 사라지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 역시 헤세의 성적 갈등, 피해의식, 동화적 환상, 도피, 냉소 같은 역동적 요인들을 시사한다. 이 자서전적인 글에서 헤세는 자신이 타고난 개신교도라고 말한다.

헤세는 결국 젊은 뱀어의 요구로, 결혼한 지 3년 후 1927년 이혼한다. 서로 알고 지낸 8년 동안 같이 산 것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뱀어는 나중 다시 다른 사람과 재혼하였다).

1927년경부터 헤세를 도와주던 랑이 심하게 병들었고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워졌다. 이제 헤세가 궁지에 빠진 랑을 돕는 친구가 되었다.<sup>30)</sup>

#### 안정의 회복

헤세는 1927년 경 50세에 이르러 다시 안정을 찾았다. 우울증에서 회복한 헤세는 글쓰기와 사회적 활동을 재개하였다. 이즈음 헤세가 안정을 찾은 이유는, 양극성 장애의 자연스런 경과일 수도 있고, 10여 년에 걸친 정신분석의 효과 때문일 수도 있고, 그가 상처받은 ‘황야의 이리’로서 격렬하고 난폭한 감정을 행동화(acting out)와 공개적 고백을 통해 정화하는 과정을 가졌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고, 나이에 따른 또는 ‘젊은’ 뱀어와의 이혼으로 인한 성적 갈등의 소멸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 아마도 정신분석을 통해서, 헤세 자신이 어려서부터 경건주의에 의해 트라우마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트라우마가 경건주의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경건주의자들인 부모와 교사들의 편협된 권위주의적 행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부모가 역시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새삼 후회와 죄의식과 또는 의혹을 야기하여 그를 한동안이나마 혼돈에 빠뜨렸을 것이다.

한편 헤세의 안정이 니논(Ninon Ausländer, 1895~1966)이라는 18세 연하의 젊고 헌신적인 여성과의 만남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더욱 설득력이 있다.<sup>32)</sup> 니논은 비엔나 출신의 유대계 여인으로서, 14세 때 헤세의 글을 읽고 그를 흠모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27세 때, 친정아버지가 죽은 직후, 이미 뱀어와 사귀고 있던 45세 헤세를 만나러 몬타놀라로 찾아왔다. 결국 그녀는 이혼한 후 별거 중이던 헤세와 동거하였다. 헤세가 이혼한 후 36세의 니논과 54세의 헤세는 1931년 결혼하였다. 결혼식 후 니논은 혼자 이태리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그들은 성(sex)을 제거한 결혼 생활을 약속하였기 때문이었다.<sup>32)</sup> 니논은 ‘같이 있으나 따로’인 결혼 생활을 감내하면서 남은 평생을 헤세에게 헌신하였다. 그녀는 가사를 도맡고 책과 신문을 읽어 주고, 편지를 대신 써 주고, 방문객을 통제하면서 모성적 돌봄으로 헤세를 보호하였다. 니논이 스스로 자칭한 ‘봉사’는 헤세도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삶과 활동이, 예술과 인간에 대한 봉사로서 이해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논의 태도는 당시 많은 여권론자들에게 분노를 자아내었다. 헤세에게 있어 니논은 극단적으로 말해, 꼭 필요한 존재이며 동시에 불필요한 사람<sup>32)</sup> 즉, 양가감정적 대상이었다. 그러나 정신역동적으로 보면, 늦게나마 니논의 헌신적 사랑으로 헤세의 모성적 사랑에 대한 갈구가 채워졌던

것 같다.

###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

헤세는 이미 <예술가와 정신분석>(1918)<sup>28)</sup>을 통해 정신분석에 대해 칭송과 동시에 그 한계도 시사하고 있었다. 즉 정신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작가의 무의식은 이미 작가들이(이전의 종교철학자들도) 어렵듯이 알고 있었던 “너 자신을 알라!”라는 교훈 수준이라는 것이다. 헤세는 처음부터 그의 모든 글에서 정신분석의 개념들, 예를 들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학술용어(academic jargon)를 사용하지 않았다.<sup>6)</sup> 그 대신 그는 예술적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무의식을 내면이라고 했고, 꿈을 밤의 놀이(nächtliche Spiele)라 하였다. 그런데다 10여 년에 걸친 융 분석은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나 우울증의 재발은 막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었다.<sup>31)</sup> 헤세는 실망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헤세는 우울증에 유전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정신분석을 불신하게 되었을 수 있다.

세 번째의 융 분석이 마무리되고 헤세의 정신상태도 안정될 즈음 헤세는 <뉘른베르크 여행>(1927)에서 정신분석에 대해 편협한 도그마적 아카데미즘이다, 또는 인생의 현상들을 과학적 공식으로 단순화시킨다 등,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헤세는 정신분석에서 큰 인상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창조적 과정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sup>10)</sup> 1931년 한 서평에서 헤세는 융을 체계적으로 저술하는 학자라기보다는 환자를 치료하는 일개 의사로 평가하였다. 1950년 한 편지에서는 랑이나 융은 물론 다른 정신분석자들도 예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의식의 표현 형태로만 간주한다고 비판하였다.<sup>12)</sup> 헤세는, 모든 문화적인 업적은 ‘콤플렉스의 결과’이며, 콤플렉스가 치료되는 곳에서가 아니라, ‘콤플렉스의 위기적 상황이 창조적으로 실현되는 곳’에서 생겨난다고 보았다.<sup>2)</sup> 헤세는 예술가가 자신의 ‘예민성’, 즉 자신의 ‘가장 결실이 풍부한 생산수단’을, 치료라는 과정을 통해 없애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릴케와 공감했는데, 즉 “자신의 악마를 쫓아내느라 자신의 천사마저 내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31)</sup> 당시 프로이트 역시 정신분석이 예술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즉 프로이트는 1930년 괴테상 수상 연설<sup>33)</sup>에서, 괴테에 관련하여 아무리 잘 쓰여진(정신분석적) 전기라 하더라도 예술가의 본질을 이루는 그 놀라운 창조적 재능의 비밀과 미학적 가치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말하였다. 아마도 헤세도 이 연설에 대해 알았을 것이며 공감하였을 것이다.

### 융과의 논쟁

1934년 57세의 헤세는, 융이 쓴 프로이트에 대한 한 논문과 관련하여, 승화(sublimation)에 대해 융과 논쟁하였다<sup>1)</sup>: 헤세는 프로이트를 옹호하며 융이 프로이트의 중요 개념을 반대한다고 비판하였다. 즉 헤세는 승화는 허구가 아니라, 본능의 에너지를 자연적 목적에서 더 높은 목적으로 굴절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모든 성자의 의식(ritual)과 예술가들의 변환에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융은 이에 대한 대답에서 자신은 프로이트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이트가 승화를 단순히 억압과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기제로만 보았다는 것을 부각시키려했던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진정한 예술적 승화는 무의식의 원형의 힘이 문화와 이상으로의 연금술적 변환(alchemic transformation)을 통해 실현되는 곳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반론에 대해 헤세는 자신은 프로이트에 더 동의한다고 하며, 예술가에게는 원초적 본능의 변환이 문제가 아니고, 원초적 본능이 예술가의 전체 인격을 사로잡아 다른 본능들을 중단시키는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만일 예술을 창조하는 주된 충동이 신경증적이라면 이는 정신분석이 예술가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정신분석은 평생을 예술에 바친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가에게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아마추어 예술가들에게 일어난다면 괜찮으나, 헨델이나 바흐에게 일어난다면 이는 후손을 끊는 것이다. 승화(예술 창조)는 은총의 수준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진정한 예술가는 대중이나 애호가로서의 예술가가 아니라, ‘하인(servant) 또는 피해자로서 예술가’를 말한다. 헤세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에게는 심신의 아픔이 그의 창조적 작업의 모체(matrix)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융은 헤세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했으나 그에게 ‘아픔이 주는 은총’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sup>1)</sup> 그러나 이 논쟁은 대체로 헤세의 용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sup>10)</sup>

### 정신분석에 대한 양가감정

그의 정신분석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아마도 어린 시절 바트볼과 슈테텐에서의 부정적인 기억, 20세기 전반기의 정신의학에 대한 일반적 편견과 오해, 그리고 정신분석에서 자신의 무의식, 특히 그의 죄의식이 폭로되는 것에 대한 헤세 특유의 저항 내지 피해의식(자기애의 손상) 때문일 수 있다. <요약된 이력서>(1927)<sup>19)</sup>에서 그는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던 사실을 ‘어떤 정신적 고통’으로, 그리고 정신분석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성찰’이라는 말로 그야말로 간단하게 대신하고 있다. 그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분석의사였던 랑과 융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랑과는 평생 우정관계를 지속

하였고,<sup>30)</sup> 또한 1936년에 헤세는 융에게 시 〈Joseph Knecht의 꿈〉을 보내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융에 대해 축하인사나 서평들로 존경을 표하였다. 헤세는 프로이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존경을 표했고, 나치스가 프로이트를 억압할 때 용감하게 그를 옹호하였다. 헤세가 73세 때도 정신분석을 비판하면서도 프로이트나 융을 공부하는 것은 쓸모 있다고 하였다.<sup>12)</sup> 81세 때 한 편지에서 헤세는 자신의 정신분석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회상한다. “정신분석은 내 개인적으로 이로웠습니다. 프로이트와 융의 몇몇 저서에 대한 독서는 실제적 분석보다(즉, 공부가 체험보다) 더 유용했습니다. 훗날 정신분석에 대한 관계가 보다 냉담해졌는데, 그 이유는 한편으로 여러 번 분석을 받았어도 별 효과가 없거나 위해작용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예술에 대한 진정한 관계를 가진 분석자를 한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나는 예나 지금이나 심층심리학에 대한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sup>12)</sup> 이 모든 사실들은 헤세의 양가감정적인 대상관계를 정신분석이나 자신의 분석의사와도 반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다시 경건주의로

헤세는 50세경 즉, 정신분석을 끝낼 즈음 여러 글들과 개인적 편지들을 통해, 새삼 자신이 개신교도라는 정체성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요약된 이력서〉(1927)<sup>19)</sup>에서 그는 “나는 우연하게도 경건한 신교도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질적으로나 천성적으로 개신교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후고 발이 말한 것처럼 “그가 아버지한테서는 양심의 엄격함을, 어머니한테서는 경건한 찬송가를 배웠기 때문이다.” 헤세는 자신이 조부모와 부모가 ‘삶을 통해’ 일관성 있게 보여준 경건주의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가 한동안 부모의 기독교를 비판한 것은 통상적인 종교체제에 대한 것이었으며, 예수와 십자가를 비판한 것은 아니었으며, 종교의 타당성을 부인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protestant는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도 protest하기 마련이다<sup>19)</sup>라고 자신을 합리화하였다. 그는 자신의 문학이 포괄적으로 신앙고백이라 하였으며, 만일 최후의 심판이 있다면, 자신의 고해의 정직성이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sup>12)</sup> 자신이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그리스도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고 추측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사실은 여러 번 그리스도에게로 되돌아갔다고 하였다. 헤세는 자신은 내적으로 경건주의를 매개로 하여 끊임없이 종교와 대화하여 왔으며, 경건주의를 자신의 영적 자원으로 존중하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즈음 시들을 통해서도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숙고〉(1933), 〈구세주〉(1940) 같은 시들이 그러

하다. 지난 날 동안 그의 소설들도 고백적이고 자전적인 교양(성장)소설(bildungsroman)로서 이들을 관통한 정신은 경건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 헤세의 신학

헤세가 정신분석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개신교도라고 말할 즈음, ‘거의’ 기독교적인 자신의 종교사상을 정리한 〈짧은 신학(Ein Stückchen Theologie)〉(1932)이라는 글을 썼다. 여기서 그는 정신분석을 받기 전의 자신의 세계관과 정신분석을 통한 통찰을 통합하여 인간화 또는 인간화(자기실현)의 3단계(triadic rhythm of humanization)의 신학에 대해 말했다<sup>11)</sup> : 그 첫 단계는 순진무구하고 무책임한 소아기 신앙수준이다. 2단계는 문화, 도덕, 종교, 인류의 이상 등의 압력에 따라 선악의 개념, 자아의 개념, 죄의식 등을 가지는 단계로 이는 청소년기 수준에 해당된다. 이때 진지하게 개성화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1단계의 환상이 깨어지고, 절망이 찾아든다. 그는 다시 소아로 퇴행하든지, 영웅적이고 비극적인 투쟁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든지 해야 한다. 이때 아집(Eigensinn)이 필요하다. 3단계는 절망으로 패배와 몰락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절망을 이겨내고 영적 세계로 가든지 하는 것이다.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강한 초월적 자기의지(self-will)가 필요한데, 이 자기의지에 근거하여 절망과 소외를 극복하고, 자신과 자연과 화해할 수 있으면, 또는 외향적, 부정적 및 남성적 자아(의식적 합리적 마음)와 내향적 및 모성적 자아(무의식적 경건한 마음)가 자기(the Self)로 통합될 수 있으면, 도덕과 법 너머의 은총과 재생(부활)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이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 3단계까지 발전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며, 헤세 자신도 그러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싯다르타〉의 바수데바와 〈유리알 유희〉의 음악의 대가가 이 경지에 들어간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발달’에 대한 개념은 낭만주의의 ‘내면으로의 길’, 정신분석의 발달이론과 융의 개인화 과정, 또한 소위 오랜 entelechia(현존하는 모든 존재는, 단순히 잠재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특정한 적절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목적을 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철학적 개념) 내지 natural supernaturalism(자연적인 것에 잠재되어 있거나 자연적인 것에서 표현되는 초자연적인 것 또는 사물의 보통의 일상적인 과정에서 기적적인 것이 나타남)이라는 낭만주의적 개념 등을 자신 특유의 방법으로 혼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헤세의 인간됨(Menschwerdung, humanization)이란 개념의 핵심을 이룬다.

## 또 다른 새로운 문학

내면의 억압상태를 정화한 후, 헤세는 다음의 경건주의적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이미 <싯다르타>에서 경건주의가 잘 표현되고 있다고도 한다). 50세경부터 그는 인간에 대한 정신분석적인 해석을 초월하는, 삶의 양극성을 다루는 소설을 쓴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1930)는, 나르치스로서 대변되는 남성적-정신적, 명상적, 및 분석적인 삶의 이상과, 골드문트로서 대변되는 여성적 감성적 및 종합적인 삶의 이상이, 여행이라는 과정을 통해 통합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이후에는 인류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예술을 통합하는 더 큰 스케일의 여정, 또는 nature로의 여정, 또는 Seele보다 Geist 쪽으로의 여정을 그린 것이라 평가되는 종교적 문학을 쓰기 시작하였다. <동방여행>(1932)은 여러 시대의 지식인(Geist를 표방함)들이 단체를 만들어 고귀한 보물(지혜의 원천)을 찾아 미지의 동방으로 방랑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여행 도중 하인 레오가 사라짐으로 난관에 부딪치는데, 여행의 기록자 H.H.(작가 자신을 의미)는 그 하인이 실은 교단의 은밀한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최후의 대작 <유리알 유희>(1943)는 10여 년에 걸쳐 생성되고 나치스의 핍박 속에서 출판된 소설이다. 이 소설은 일종의 ‘환상적’ 미래소설로서 무대는 서기 2200년경의 학문의 유토피아 카스탈리아이다. 여기서 남자들로만 구성된 종단의 수도사들이 인류의 모든 지혜, 사상, 예술들을 연구하고 그 정수를 유리알 놀이처럼 연희한다(비유하자면 유리알들을 음표로 하여 경건주의 성가의 대위법으로 전개하는 우주적 음악처럼). 주인공 Knecht(하인이라는 의미)는 탁월한 공부로 ‘유리알 유희’의 최고의 대가가 된다. 그러나 그는 결국 카스탈리아의 현학적 활동이 공허한 것이라는 점에서 회의하고 결국 배교하여 바깥 현실적 세속으로 떠난다. 그는 한 소년의 교육에 자신을 헌신(봉사)하기로 한다. 그런데 그는 어린 제자의 요청에 응하려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 돌연 소설은 끝난다. 주인공은 죽지만 죽음에서 재생의 희망을 남긴다고 해석된다.<sup>34)</sup>

그는 유리알 유희 이후 소설은 더 이상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단편이 하나 있는데, <노르말리엔의 보고서>(1948)이다.<sup>2)</sup> 이는 카스탈리아와는 반대로 한 정신병원이 독재적인 체제로 서서히 변해 가는 이야기이다. 즉 거기에서는 병적인 것이 건강한 것으로, 엉터리 같은 것이 이성적인 것으로, 그리고 기형적인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정신분석 이후 헤세에게 유머 감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바, 이 이야기에는 정신병원에 대한 풍자가 포함되어 있다.

## 2차 세계대전 전후

1933년 나치스가 정권을 잡자, 토마스 만 같은 독일 작가

들과 유태계인 치가 식구들과 헤세를 치료했던 의사 Fraenkel 등 정치적 망명자들이 스위스로 왔다. 헤세는 열심히 난민들의 정착을 위해 봉사하였다. 헤세는 다시 조국 독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결국 나치는 헤세의 책들을 금서로 지정하였다. 1943년 <유리알 유희>는 발간되자마자 바로 금서가 되었다. 그러나 헤세는 1차 세계대전 때 만큼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비교적 침묵으로 대응하였다. 그러자 망명자들은 헤세가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종전 직후에도 헤세가 나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있었다. 1차 세계대전 때 겪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1946년 <유리알 유희>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등, 곧 헤세는 명예를 회복하였다. 헤세는 공식적으로 수상에 대해 영예로 알고 감사를 표했으나, 사적으로는 그의 특유의 양가감정적인 냉소적 반응을 나타내었다.<sup>5)</sup> 독일 사회도 속죄의 의미로 헤세를 기리기 시작하였다. 각종 문학상 같은 영예스러운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가 1950년대 한때 매카시즘의 여파로 헤세에게 ‘공산주의의 변장한 추종자’라는 혐의를 받았다.<sup>2)</sup> 이는 그가 “공산주의적인 시도는 비록 그것이 슬프게도 비인간성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시민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에 정의와 형제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되풀이해서 단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이유에서 적극적인 공산주의자일 수가 없었고,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가담하지도 않았다.<sup>2)</sup> 더욱이 그는 폭력을 증오했고 또한 공산주의의 방법들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도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헤세는 정치적으로 무당파를 표방했는데, 실제로는 차원이 다른 초당파였다고 보아야 한다.

## 마지막 날들

헤세는 죽을 때까지 몬타놀라에서 살면서, 정원 일, 그림, 산책, 도보여행 등을 즐기며 지냈다. 손님방문도 계속되었다. 헤세는 문학 활동은 중지하였으나 시, 산문, 평론, 그리고 특히 편지들은 계속 썼다. 그가 이미 어린 시절에 열렬하게 편지를 썼듯이 그는 자신에게 의견을 묻는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일일이 답장하였다. 헤세가 노벨상을 받음으로써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후로, 그에게 배달되는 편지가 폭증하였다. 그는 생전 3만5천여 통의 편지를 썼다고 한다. 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헤세가 교육자, 의사 또는 고해신부인 것처럼 신뢰감을 갖고 자신들의 마음을 토로하고 개인적인 문제점들과 고난에 대해 도움을 구했다. 특히 헤세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영적 지도자 내지 멘토로 추앙받았다. 이때 정신분석 경험이 만년의 헤세에게 자기 인식의 확고한 기반의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sup>2)</sup>

그는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는 많은 의사들과 요양원의 신세를 져야 했다.<sup>20)</sup> 그의 병력을 자세히 보면 그의 앓음과 불평은 상당부분 건강염려증 때문이었다. 70세 이후 심장병이 악화되어, 주로 몬타놀라에 머물렀다. 그에게 백혈병이 발생했음이 발견되었으나, 본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아, 헤세 자신은 자신의 쇠약을 노화로만 알았다. 1961년부터 백혈병이 악화하면서 계속되는 주사와 수혈로 그는 괴로움을 겪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다.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정원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무의식 깊이 죄의식은 해결되지 않고 남아, 가볍기는 하지만 계속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의 고독과 절망은 인간의 나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는 시들로 표현되었다. 1962년 8월 8일 85세 때 그는 마지막이 될 시 〈꺾어진 가지의 뼈격거림〉을, 완벽주의자처럼 세 번째 개작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모차르트의 소나타를 들으면서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수면 중에 사망하였음이 발견되었다. 그의 시인은 간소한 장례식으로 몬타놀라 근교 성 아본디오 묘지에 안장되었다.

헤세 사후 그의 부인 니논은 헤세의 유작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출판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헤세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였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지 4년 후에 죽어 남편 옆에 묻혔다. 니논의 인품과 헌신의 삶은 헤세의 삶의 마지막 30년 동안 그의 삶과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한참 후에야 정당하게 평가되었다. 헤세의 삶과 문학에 대한 자기 해명의 글들은 헤세 사후에 〈나의 신앙〉(1971)과 〈아집〉(1972) 등 두 권의 글 모음집으로 출판되었다.

## 사후의 영향들

헤세의 소설들과 시들과 에세이들 그리고 편지들은 헤세 사후 여러 차례 편찬과 출판이 거듭되었다. 특히 그는 1960년대 ‘반항하는’ 전 세계 청년들에게 널리 호기심 어린 환영을 받았다. 특히 미국에서는 본의 아니게 그는 저항적 히피 문화의 구루로 추앙받았다. 그의 소설들은 서구 문물에 접하기 시작한 인도와 동아시아의 젊은이들에서도 인기를 끌었다.<sup>2)</sup> 헤세는, 자신만의 길을 가라는 주제의 소설들은 말할 것 없고, 지적이며 정직한 경건주의적인 신념으로, 현대 사회문화에 회의하면서 정체성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조언들을 제시하고 있다.

## 고 찰

### 진 단

슈테텐에 남아 있는 1892년 당시 임상기록에 의하면 헤세

의 병명은 멜랑콜리아(melancholia)였다.<sup>20)</sup> 당시 살원장과 헤세 아버지는 헤세의 병을 도덕적 정신병(moral insanity)으로 보았다. 다른 의사들은 이때의 병명으로 primäre Verrücktheit(primary madness, 원발성 정신병), 주의력 결핍 과잉운동장애, 또는 자폐증 등으로 제안하기도 한다.<sup>20)</sup> 저자는 현재의 진단기준에 의하면 II형 양극성 장애(type II bipolar disorder)로 진단된다고 본다. 헤세의 지속적 두통 같은 정신신체 증상들, 불면증, 건강염려증, 강박증적 경향, 그리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 등은 상당부분 가면우울(masked depression)의 현상들로 볼 수 있다. 이런 작가의 모습은 예술가의 창조성이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다는 연구들<sup>35,36)</sup>과 일치한다.

## 정신사회적 발달과 정체성

헤세의 정신성 발달과 정체성 발달에서의 문제는 유아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우선 그가 태어났을 때 붙여진 이름, 헤르만은 친가와 외가 두 할아버지의 이름으로서, 그에게 가문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는 또한 어려서 죽은 아버지 다른 형의 이름으로 어머니는 그 이름을 헤세에게 주고 자신의 죽은 첫 아들의 사랑스럽고 순수한 이상화된 이미지를 헤세에게 투사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헤세는 어머니가 자신을 한 사람의 독특한 개체로 인정하고 사랑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혹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그가 1~2세였을 때 두 동생이 매년 출현하여, 형제간 경쟁에서 장남으로서 누린 우월적 지위가 손상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동생들의 죽음으로 어린 헤세의 복수적 소원이 ‘마술적’으로 이루어져, 가족 내 우월적 지위는 회복되었으나, 아마도 자신의 공격성에 대한 죄의식이 무의식에 남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죽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애도과정 동안 헤세에게는 어머니와의 애착경험이 결핍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어린 헤세의 사랑에 대한 갈구와 죄의식과 정체성 문제는 그가 4살 때 자기 이름을 셋(Seth)으로 바꾸어 달라고 한 사실에 의해서 지지된다. 셋은,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 아담과 이브에게 세 번째로 보낸 선한 아들이다. 어린 헤세는 자신을 동생을 죽인 카인과 동일시했고 그래서 죄의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고 싶어했던 것 같다(소설 〈데미안〉에서는 카인은 영웅으로 두둔 받는다). 이런 정체성과 죄의식 문제는 헤세가 평생 죽음(정벌)과 재탄생(구원)에 몰두하는 행동을 설명한다. 이는 또한 그가 어려서부터 옛(성경) 이야기에 비추어 현재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었음과 소아기 트라우마가 헤세의 문학의 소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up>15)</sup>

소아들은 흔히 부모를 괴롭히면서 그 반응을 통해 부모가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려 하는데, 그런 행동은 더

부모의 부정적 반응을 야기하여 다시 배척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쉽다. 소아 헤세도 그런 악순환에 따라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이 증폭되어 갔을 것이다. 헤세의 부모와의 갈등은 부모의 경건주의 탓도 있겠지만, 아들 헤세의 예민하고 고집스러움, 넘치는 에너지와 활력, 뛰어난 상상력과 지능, 그리고 비판과 반항정신 탓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24)</sup> 그런 반항적 기질 역시 더 어린 시절의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되찾고자 하는 투쟁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런 악순환은 헤세가 6세 때 기숙유아원으로 쫓겨가는 징벌적 분리(separation)로 귀결되었으며, 이는 분명히 심각한 외상이 되었고, 분노와 반항심은 더 커졌지만, 아마도 무의식화되었을 것이다. 헤세 부모도 어릴 때 그들의 부모와 분리되는 상처를 받았는데, 그들은 이를 자기 자식에게 반복하였던 셈이다. 그러한 부모와의 양가감정적 관계는 헤세 평생을 통해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도 반복되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헤세는 사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지만 배척을 자초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헤세는 정신분석을 통해 아마도 이 모든 역동적 과정을 통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화해의 의미에서 다시 부모의 개신교로 돌아간다고 했는지 모른다).

헤세 전기들과 문학 비평들은 헤세가 편협한 경건주의자 부모에 의해 상처받은 사실을 주로 부각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헤세는 부모로부터 교양 높은 경건주의 훈육을 받았고, 헤세 자신도 부모의 정신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했다고 본다. 경건주의 훈육이 자제, 정직, 엄격한 자기검토와 자기 앎, 경건한 삶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다면, 헤세는 이러한 생활태도를 훌륭하게 실행하였다. 헤세는 자신이 경건주의에 의해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나, 부모와 조부모가 경건주의의 삶을 실제로 살았다는 사실에 그가 깊이 영향 받았고, 그 자신 그들을 동일시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통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헤세는 경건주의에 대해 억울함과 비판의식과 더불어 동시에 경외심을 가졌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경건주의를 자신의 '아집'의 근원으로 동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 청소년기 고착

헤세의 정신성 발달은, 청소년기의 반항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너무 컸고 제대로 마스터되지 못하여, 청소년기 수준에 고착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그는 평생 청소년기적 행동방식, 즉 순수함, 정직함, 단순함, 진지함,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나이가 들면서 그의 저항은 부모를 넘어 그들의 기독교와 독일 사회와 나중에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된다. 한편 이런 청소년기적 순수한 비판정신은 프로테스탄트 정

신에 의해 그 정당성이 강화되었던 같다. 이러한 청소년기적 정신 상태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그는 성인으로서의 대인관계에서, Erikson이 말한 바 청년기 친밀(intimacy)을 이루기 어려웠다. 자연히 그는 가족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비적응적이었다. 그는 고립(isolation)을 자초하고 은둔자 내지 사회적 '아웃사이드'로 살았다.

헤세 문학도 헤세의 청소년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헤세의 낭만적 서정시는 '무한한 변화 속에 있는 청소년의 민요'라고 평가된다.<sup>3)</sup> 소설에서도 그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잃어버린 시간'과 고향의 풍경과 이웃 사람들 이야기를 문학으로 반복 재현함으로 소아청소년기 경험을 마스터하려 하였다. 헤세 자신도 인간이란 약 13, 14세까지는 아주 예민하고 참신하게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일생 동안 이 경험을 먹고 산다고 말했다.<sup>2)</sup> 헤세는 <짜라투스트라의 재래>에서 말했듯이 세계대전으로 붕괴된 서구 문명을 회복시킬 희망을 청소년에게 두었다. 헤세는 소설에서도, 괴테의 경우처럼, 변화 속에서 지속되는 '청춘의 힘'을 그리고 있다.<sup>2)</sup> 더구나 헤세가 선호하는 마술, 환상, 그리고 동화라는 문학방식<sup>9)</sup>은 더 어린 소아기적 근원을 가진다. 헤세가 평생 공부한 것들을 집대성하는 것을 '유리알 유희' 즉 놀이라고 이름한 것도 그의 소년기적 정신세계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어떤 비평가들은 헤세 소설은 서사가 부족하고, 주인공들의 의도나 행동들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나, 모색적이고, 변덕스럽고, 지리멸렬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한다.<sup>31)</sup> 이런 행동방식은 소아기적이다. 심지어 어떤 소설은 조현병 환자의 병력(病歷) 기록 같다고 평가된다.<sup>7)</sup> 조현병의 특징은 소아기로 '퇴행'된 사고방식이다. 헤세의 이런 문학은, 어떤 비평가들에 의해서는, 작가의 '미성년자의 정신상태', '성인들의 더러운 세계에 반항하는 몽상가'의 정신 상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비평받기도 한다.<sup>2)</sup> 한편 헤세는 자신의 새로운 문학을 특징짓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비통상적(전위적) 방식을 사용한 것인지도 모른다.

청소년기의 주요과제는 정체성 확립이다. 헤세의 경우, 그의 정체성 문제는, 1)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식인가 하는 정체성, 2) 자신이 남자인가 하는 성정체성, 3) 시인/작가인가 하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4) 죄인인가 하는 종교적 정체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헤세는 소아기에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식으로서의 정체성에 의문을 느끼고 이후 정체성 발달에 곤란을 겪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시인이 되기 위해) 부모와 기독교(경건주의)를 떠났다. 청년기에는 그는 여러 문학과 철학과 문화(이탈리아, 인도 등)와 종교(신비주의, 영지주의, 힌두교, 불교, 도교 등)들을 편력하였다. 청년기의 실패(우울증) 후 중년기에

는 융 분석을 통한 ‘자기(the Self)’를 찾는 길도 가 보았고, 그 이후에는 더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대극합일의 과정의 길을 걸어가려 하였다. 헤세의 문학도 작가 자신의 대역인 주인공들의 각종 경험을 통한 정체성 추구 과정(편력,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sup>10)</sup> 헤세는 소설 주인공들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통한 성숙과 내면의 확인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는 인간되어감(Menschwerdung)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이는 ‘질료가 생기를 통해 형상을 얻어가면서 완성되어가는 과정(organic entelechial becoming)’을 의미하는데,<sup>10)</sup> 이는 낭만주의의 산물이며, 정신의학적인 정신성발달 즉 후성유전적(epigenetic) 정신사회적 발달 과정, 그리고 융의 자기실현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로써 헤세는 독일의 Bildungsroman(성장소설, 교양/교육 소설)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정신분석 치료 이후에도 내면적으로는 어려서부터의 부모와 단절했음에서 유래하는 죄의식을 평생 해소할 수 없었다고 본다.

### 역동적 고찰

저자는 헤세의 우울증의 핵심되는 역동적 요인은 양가감정적 갈등과 죄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고전적 정신분석적 이론<sup>37)</sup>에 따르면, 헤세의 우울증은 죄의식으로 인해 양가감정적 공격성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됨으로 나타났고, 경조증은 자신을 자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울증에 대한 강제적 반전(forced reversal)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양가감정

헤세의 경우 그의 양가감정적 갈등이란 사랑의 갈구와 배척받을 것이라는 예상, 또는 배척 받았다는 느낌, 그리고 그에 대한 분노/증오와 수동공격성의 공존 상태로 본다. 헤세의 양가감정의 기원은, 한편으로는 그가 부모의 사랑과 칭찬과 경건주의의 좋은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가 자신의 의지를 꺾으려고 억압한 것에 분노하고 증오하고 저항을 하였던 것에 있다. 부모는 “인간의 의지는 본성상 및 본질상 악이기 때문에 그 의지는 꺾어져야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새롭게 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독교 신앙에 충실하려 하였던 것이었다. 이후 그는 부모를 계속 비판하였지만 동시에 그는 지속적으로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받기를 갈구하였다. 이러한 헤세의 양가감정은 그가 15세 때 정신요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이때의 양가감정은 아버지의 사랑과 이해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강한 살인적 증오심의 공존상태였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헤세는 자신의 낭만적 시를 음란하다고 비판한 어머

니를 증오했지만, 한편 그는 “어머니는 내 오랜 삶의 정열적이지 못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고결한 사랑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sup>17)</sup> 이러한 소아청소년기 양가감정은 이후의 삶의 단계마다 대인관계, 여성관계, 부부관계, 사회관계, 조국 독립과의 관계, 정신분석과의 관계, 기독교와의 관계 등에서 반복되면서 위기를 불러 왔다. 그는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거리를 두려 하였고, 비판하면서도 인정받기를 원하였다. 평생 통해 그는 안정된 관계맺음에 대한 소원과 도피하려는 욕구 사이를 왔다 갔다 하였다. 전쟁 중에는 반전 평화주의자이면서도 그가 사랑하는 독일의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독일이 이기기를 원하기도 했다. 그는 삶에 대한 의지도 강하였지만 늘상 죽음에 집착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Freudman<sup>1)</sup>은 헤세 인생의 double melody라 하였다. 이러한 그의 양가감정이 병적으로 나타날 때 양극성 장애로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그는 우울증 때 깊이 내면으로 침잠하여 성찰에 들어갔다가 경조증 때 그 성찰한 바를, 조증적 연상에 따라, 왕성하게 문학으로 표현하였다.<sup>36)</sup> 그의 문학과 사상에서도 양가감정은 양극성(polarity) 또는 대극성에 대한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 양극성적(대극적) 주제는 청년기에 학교에서 탈출하는 소년과 자살하는 소년, 남과 여, 사랑과 미움, 삶과 죽음, 자연과 정신(nature-Geist dilemma) 등으로 나타난다. 정신분석 이후에는 그 양극성은 의식(승화하는 Geist)과 무의식(리비도로서 nature), 선과 악, 지성과 감정, 엘리트와 하인, 종교와 세속, 음과 양, 동양과 서양, 단일화(내면화)와 다변화(외부화) 등으로 확대되었다.

양가감정에 관련된 헤세의 공격성은 수동공격성으로 나타났다. 즉 소아청소년기 때는 고집, temper tantrum, 아버지한테 자살하게 권총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 등에서 볼 수 있다. 성인 헤세의 수동공격성은 비판, 침묵, 고집, 거리두기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의 비판정신은 그로 하여금 ‘rebel-seeker’라는 이름을 얻게 하였다.<sup>1)</sup> 정신분석 이후에는 냉소, 풍자 등이 추가되었다. 통증 같은 신체화 증상, 건강염려, 강박적 완벽주의, 내면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 죽음에 대한 관심(Todessehnsucht) 등도 그의 내면적 수동공격성과 관련된다고 본다.

### 성적 갈등

부모와 관련된 양가감정적 갈등은 대개 청소년기의 성적 갈등과 성적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진다. 즉 바트볼에서의 연상의 처녀에 대한 무모한 구애, 어머니와의 갈등, 동년배 여성(율리아, 엘리자베트 라로슈 등)들과의 어정쩡한 연애의 삽화들, 10여 세 연상이나 20여 세 연하의 여성들과의 결혼과 그 실패, 세 번째 18세 연하의 헌신적 니논과의 무성적(sex-

less) 결혼으로 비로소 안정을 찾았던 점, 간헐적인 성충동의 행동화 등이다. 헤세는 세 부인들에게 한결같이 글(동화 또는 시)을 헌정하며 사랑을 표시한 것 같으나, 그러면서도 그는 <요약된 자서전>에서는 부인들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헤세의 문학에서도 청소년기적 성적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청년기의 낭만적 시들은 대개 여성(어머니, 성모, 누이 등)을 향해 감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오이디푸스적 요인들이 시사된다. 특히 예민한 어머니는 그의 낭만적 시에서 ‘음란’을 읽을 수 있었다. 소설에서도 여성이 주인공인 소설이 드물며 더구나 조연인 여성 등장인물들은 대개 청순한 여성 아니면 창녀이다. 그 여성들은 한결 같이 작가의 대역인 남자 주인공들의 구원을 돕는 모성적 역할을 하는데, 이는 작가의 소원을 시사한다. 특히 <데미안>에서의 에바부인은 남녀 양성(androgyne)으로 어머니이자 애인이며 여신으로 매우 특이한 추상적, 환상적 존재이며, 따라서 주인공과의 관계는 근친상간적이다. 이처럼 헤세 소설 속의 모호하고 이상하고 왜곡된 여성상은 헤세의 어린 시절 경험 때문이라 한다.<sup>18)</sup> 마지막 두 소설에서는 여성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남자들만의 세계가 그려진다. 이는 정신역동적으로(작가 자신이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듯이) 성에 대한 양가감정적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여성과의 거리두기의 결과로 보인다. 반면 많은 소설에서 동성애 주제가 숨어있다<sup>38,39)</sup>고 하는 바, 자주 남자 주인공들의 남자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그려지며(예를 들어 싱클레어와 데미안, 싯다르타와 고빈다, 하리할러와 파블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등), 마지막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소년애(pederasty)가 시사되고 있다. 이는 헤세 자신의 사춘기 때 남자 기숙학교에서의 탈출 사건, 남자 친구들과 간의 유별난 지속적 우정, 원만하지 않은 여성 관계, 나치스에 대항하여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사실 등과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 죄의식

헤세의 죄의식은 자신의 공격성(반항, 분노, 떠남, 비판, 고집 등)에 대한 죄의식과 청소년기적 성적 충동에 대한 죄의식으로 생각된다. 중년기에 헤세는, 직관을 통해서든 정신분석을 통해서든, 자신의 내면에 ‘악과 타락한 도시와 살인자의 은신처’, 또는 ‘살의(殺意), 야만스러운 쾌락욕’ 등, 본능(공격성과 성)에 관련된 죄와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사악함과 적(증오하는 대상)에 대해 자신도 공범이었으며,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을까” 또한 “잘못을 깨닫고, 고통스러워한다면 무죄가 될지” 하면서 공개적으로 죄의식을 고백하고 있다.<sup>19)</sup> 그러나 이 정도의 통찰로 헤세의 우

울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저자는 헤세의 공개적 내지 문학적 고백보다, 말하고 있지 않는 더 깊은 내면의 무의식적인 소아기의 죄의식이 문제라고 본다. 즉 자신의 기질적 공격성, 동생들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 사춘기 이래의 성적 충동, 그리고 부모에게 거역하고(시인이 되고자) 부모를(양가적이었지만) 증오하였음에 대한 죄의식이 무의식화하여 우울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격성에 대한 죄의식은 그가 4살 때 카인과 아벨의 동생으로 착한 사람의 이름인 셋(Seth)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 11살 때 아버지 물건을 훔치고 죄의식으로 불안해하였던 경험, 슈테텐에서 격렬하게 아버지를 비난 했던 것, 등에서 시사된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죄의식은 양가감정적 중요뿐 아니라 그 어린 시절의 애착 결핍(모성의 거부)에 대한 ‘저항, 절망 그리고 분리’라는 반응과 관련되어 더 깊은 무의식에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강력한 공격성과 죄의식은 그가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서 드러난다. 헤세의 낭만적이지만 ‘음란한’ 시에 대한 어머니의 비판은 헤세의 무의식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자극하였기 때문에 그의 죄의식이 더욱 강력해지고 더욱 깊이 무의식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헤세의 성적 충동은 사춘기 때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아마도 경건주의 훈육에 의해 억압되고 죄악시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트볼에서 연상의 처녀에 대한 구애는 그의 성적 표현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의해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헤세의 성적 충동과 억압과 죄의식은 이후 초기 유미주의적 내지 낭만적 문학에서 승화된 형태로,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는 헤세의 비통상적인 결혼과, 중년기 성적 충동의 행동화와, 문학에서의 상호 비적응적인 부부 이야기들과 모성적인 창녀들의 모습 등에 반영되고 있다.

### 정신역동적 통찰

헤세는 자신의 우울증이 자신이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던 어떤 무의식적 충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느꼈는지 이를 정신분석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런데 정신분석을 통해 헤세가 자신의 무의식 또는 죄의식에 대해 어느 정도 통찰하였는지, 본인뿐 아니라 랑이나 융이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다. 헤세 자신도 정신분석의 경이로움에 대한 고백은 하고 있으나, 무엇을 통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아마도 헤세는 초기에 랑과의 ‘정신분석적 대화’를 통해 개성화 또는 자기실현 같은 융의 이론을 소개받고 지난 날의 고통에 대해 설명과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분석가의 조언에 따라, 억압된 성적 충동을, 부인을 떠나 몬타놀라에서 자유로이 혼자 지내면서 관능적인 생활을 함으로 해방시킬 수 있었다. 우울증은 어느 정도 해

결되었다. 그러나 우울증은 재발하였다. 이는 양극성 장애의 경과일 수도 있지만, 정신분석에 의한 통찰이 완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인지 헤세는 분석의를 용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용과의 정신분석은 보다 더 깊은 무의식을 통찰하게 해 주었는지, ‘피 속을 흐르는 고통’과 더불어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한다. 이 때 헤세는 용을 천재라 칭송하였다. 이즈음 아마도 헤세는 자신의 죄의식과 우울증이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한 저항과 분노와 증오에 기원하였음과 그리고 그러한 부모에 대한 저항이 자기실현으로 이어진다는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헤세는 경건주의자로서 죄에 대해서는 징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용의 분석 동안 느꼈던 ‘피 속을 흐르는 고통’을 징벌의 고통으로 간주하였던 것 같다.<sup>5)</sup> 그러나 우울증은 또 재발하였다. 그는 죄의식만큼은 정신분석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음을 짐작하였을 것이다. 즉 청소년기에 부모에 거역함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self-will(아집 즉, Eigensinn)은 보존되었으나 반면 죄의식은 남았던 것이다.

그런데 헤세는 어려서부터 경건주의 훈육을 통해 당연히, 죄와 악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 괴로워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부활)받게 된다는 교리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헤세는 어려서부터 반항심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부모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났다. 그는 죄를 용서받고 사랑을 회복할 기회를 놓친 셈이다. 자기실현의 대가로 죄의식은 남았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난 죄는 깨닫는다고 또는 괴로워함으로서 해소되지 않았다(소설 <페터 카멘친트>는 헤세의 아버지와의 화해의 제스처여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화해와 용서는 실현되지 않았다). 결국 헤세는 죄를 용서받을 길 없는 상황에서, 그 죄에 대해 자기 징벌을 자신에게 가한 결과 우울증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는 우울증과 정신분석적 통찰에 따른 혼란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린 후, 자기실현과 죄의식의 대극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했다. 그는 다시금 어린 시절의 경건주의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죄 되는 행동으로 인해 부모의 꾸중을 받는다면, 이는 열등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결핍의식으로 열등감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즉 죄의식과 열등감은 하나의 콤플렉스를 이루는 수가 많다. 헤세도 어려서 부모의 배척과 징벌에 따라,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열등감은 대개 겸손함이나 사회적 고립, 또는 성공(권력이나 부 또는 명성)을 위한 끈기 있는 노력이나 자기에적 우울감 같은 보상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Baumann<sup>7)</sup>에 의하

면 헤세는, 용과 더불어 어린 때 독일 목사관 증후군(German rectory syndrome)을 가졌다. 이는 목사의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매우 우수한 지능, 예민한 도덕성, 깊은 죄의식, 열등감 등으로 이루어진 콤플렉스이다. Baumann<sup>7)</sup>은 헤세가 어린 시절의 이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 인생에서 비범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부모에 반항하여 떠남으로 그리고 끈질긴 노력으로 시인이 될 수는 있었으나, 죄의식과 열등감으로 내향적인 그리고 고립을 자초하는 아웃사이더로 살게 되었다.<sup>10)</sup> 나이 든 후 50세 즈음 그는, 정신분석으로 죄의식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면서, 긴 방랑을 끝내고 소아시절의 부모의 기독교로 돌아온다고 하였다.

## 대 응

헤세의 전기를 종합할 때, 자신의 문제에 대한 헤세의 방어 내지 대응은, 기본적인 억압/억제 외에, 도피, 공부하기, 그리고 글쓰기 등이었다고 생각된다.

억제는 주로 자제로 나타났다. 그의 자제심은 어려서부터의 경건주의 훈육에 근거한다. 이는 그의 평생에 걸친, 평소 정상감정(euthymic)의 상태(우울증과 경조증 사이 기간)에 있을 때 나타나는 소박한 그러나 교양이 높은 도덕적 생활 태도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분석으로 성적 욕구의 억제는 다소 이완되어 성적 충동의 행동화(acting-out)가 간헐적으로 보여 졌다. 반면 공격성은 비판행동으로 나타났으나, 문학에서는 <요양객>에서부터 유머나 냉소 수준으로 자제되어 표현되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 알 수 없으나, 헤세는 우울증으로부터 회복되면서 개신교도(경건주의자)로 자신을 표현하였다. 그의 새로운 속박과 헌신<sup>2)</sup>이라는 신념도 죄의식에 대한 하나의 경건주의적 방어일 수 있다.

헤세는 위기에 처하면 흔히 도피하였다. 청소년기에는 학교와 요양원을 탈출하였고, 청년기에는 부모와 고향집을 떠났고, 중년기에는 가족도 버렸고, 스위스로 이주함으로 조국으로부터도 떠났다. 그는 추운 고향 독일로부터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갔다. 그는 일상에서 지루하면 훌쩍 ‘도주’의 여행을 하였다. 이탈리아와 인도여행은 그에게 많은 것을 되돌려 주었다. 그가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나 은둔하는 것도 일종의 도피였다. 그가 정치사회적 무당파로 자처하고 좌, 우파 모두와 거리를 두었던 태도<sup>2)</sup>도 하나의 도피이다. 종교적으로는 그는 기독교를 떠나 “자신에게 걸맞는 종교를 찾아” 헤매었는데, 그는 “죄 지으면 죽는다”고 가르치는 기독교를 회피하고 싶었을 것인지도 모른다. 헤세가 정신분석을 받기로 한 것도, 더구나 심각한 프로이트보다, 악도 인정하는 ‘환상적’인 이론의 용을 선택한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의 도

피었다. 그의 문학도 떠나는 이야기가 많다. 소설 주인공들 처럼 헤세는 무소속자(homeless)<sup>5)</sup>였고 자유로운 방랑자(footloose wanderer)<sup>1)</sup>, 불안한 방랑자(a restless wanderer)<sup>15)</sup>였다.

헤세의 방어 중 또 하나의 특징은 공부하기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외할아버지의 권유로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 세상을 알아 갔다. 이 지식화(intellectualization)는 그의 뛰어난 지성을 더욱 뛰어나게 하였고, 죄의식과 열등감을 보상해 주기도 하였으며, 상상력을 자극하여 문학적으로 풍부하게도 해 주었다. 그의 비기독교적 사상에 대한 공부는 기독교에 대한 수동공격적 행동 같다. 이러한 수동공격적 충동은 헤세의 외조부 군데르트와 아버지에게서도 엿보이는데, 그들은 알게 모르게 헤세가 그런 동방의 이교들과 타문화를 공부하도록 격려하거나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들의 충동을 헤세가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거나 대신 행동화해 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 헤세의 정신분석 치료도 ‘치료적 대화’로서 정신분석 공부하기 내지 경험해 보기로 볼 수 있다. 헤세는 융 정신분석 이론을 자기 죄(죄의식)를 합리화(지능화)하는데 이용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헤세 문학은 후기로 갈수록 지식화, 즉 개념화, 추상화가 강해지는데, ‘유리알 유희’라는 개념이 대표적이다.<sup>5)</sup> 헤세가 인생의 double melody를 대위법적으로 조화시키려 하였다는 해석<sup>1)</sup>도 매우 지적이지만 추상적이다. 이 양극적 전일사상(der polare All-Einheitsgedanke)이라는 개념도 체험보다 공부를 통해 구축한 것 아닌가 한다.

문학도 헤세에게 하나의 방어로 사용된 것 같다. 문학은, 헤세 자신의 신념도 그러하지만, 내면, 갈등, 고통 등을 창조적으로 승화시킨 결과물이다. 그러나 승화 역시 방어기제 중 하나이다. 그가 13세 때 “시인이 되겠다”고 한 것은 성직자가 되라는 부모의 계획에 대한 방어일 수 있다. 그는 결국 부모와의 대결이라는 갈등과 죄의식과 강제입원이라는 트라우마라는 고통을 대가로 치르면서 결국 시인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헤세는 ‘심신의 고통’이 예술 창조 작업의 모체(matrix)가 된다고 주장했고, 또한 ‘피해자로서의 예술가’라는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모든 헤세의 소설들은 작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자전적 및 고백적 문학이다. 즉 헤세는 자신의 위기를 문학의 주제로 삼음으로 문학을 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그의 소설 주인공들은 작가 자신의 대역이거나 분신들이다(정신분석 후 그 분신들은 아니마, 페르조나, 새도우, 원형 등으로 매우 다양해졌다). 그러기 때문에 헤세는 평생에 걸쳐, 당시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문학의 주제와 내용을 바꾸어 왔는데.<sup>31)</sup> 이는 그의 인생의 단계에 따라 주로 사용한 방어기제가 달라

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초기에 주인공들은 ‘자기를 찾아’ 자연과 세상을 방랑하였으며, 중년기에는 무의식을 여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여러 삶의 모든 양극성들을 종교철학적으로 통합하는 unio mystica를 지향하였다. 그의 이야기들은 궁극적으로 작가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집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통합에는 성적 결함을 통한 자신의 성적 갈등의 해결이라는 시도는 없어 보인다. 헤세는 성을 마스터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성을 회피함으로 니혼과의 결혼이 성공적일 수 있었다. 그의 최종적 관심은 <유리알 유희>에서 나타나는바, 영성과 새로운 세상을 위한 후세의 교육이었다.

#### 융 분석심리학적 고찰

융은 우울증이란, 리비도(정신 에너지)가 의식적 인격의 중심인 자아로부터 위축 또는 내향화(introversion)된 결과라 하였다.<sup>40)</sup> 그런 편향성(one-sided attitude)을 보상하기 위해, 무의식적 내용들을 의식화하는 데 자아(ego)의 많은 리비도(정신에너지)가 소모된다. 이 자아의 정신에너지 고갈 상태가 우울증이다. 한편 ‘병적’ 우울증은 내향화가 강제된 경우에 나타난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우울증 이론이 원인론적이라면, 융의 이론은 결과론적이다. 또한 융은 인간은 자신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을 향하는 체계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신장애의 증상에 대해서도 과거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기보다, 미래와 관련하여 어떤 이유가 있다는 목적론적(teleological) 견해를 제시하였다.<sup>41)</sup> 예를 들어 신경증의 고통은, 분열된 자기 자신을 되찾아서 다시 전체성을 회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증상은 환자가 원형을 찾아야 한다는 인생의 목적을 제안하는 상징 또는 환자가 성숙으로 나아가려는 ‘도전’의 표시이다. 우울증도 인생의 잘못된 방향에 대한 한 증후로서, 반드시 병적인 것만이 아니고, 진정한 정신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경고신호이다. 따라서 정신장애는 그러기로 마음먹는다면 사람에게 진정한 자기(the Self)를 찾게 해준다. 우울증 같은 증상 경험은 없애야 할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내용들의 통합을 통해 개인을 전체성으로 인도하는 귀중한 의미가 있다.

융이 보기에, 대부분의 우울증은 나이의 문제로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들어가는 소위 고전적인 ‘중년의 위기’ 때 나타난다.<sup>40)</sup> 즉 이때의 우울증은 새로운 시기에 들어가면서,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예전 젊을 때의 태도를 이어가려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중년기 우울증은 불완전한 인생의 전반기 동안 발달해 온 자아(the ego)와 인생 후반기에 비로소 표면에 나서게 되는 자기(the Self) 간의 필연적인 충돌의 결과이다. 한편 조증 또는 경조증은 우울한 사람이 사랑의 상실을

방어하기 위해 또는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되찾기 위해, 발달시킨 극도의 외향적으로 된 정신 상태이다. 융은 또한 조증을 설명하기 위해 팽창(inflation)의 개념을 말하였는데,<sup>40)</sup> 이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집단 무의식의 원형상들의 강력한 영향으로 인해 자아의식이 원형상의 신화적 이미지와 동일시하여 자신의 한계 이상으로 마음이 들뜨게 되는 경우이다. 이때 그 사람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것 같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초인의 능력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융에 의하면 이런 팽창(조증)에 의한 위기도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우울증에 대한 융의 설명은 헤세가 자신의 경우에 들어맞는다고 보고 환영하였을 것 같다.

### 경건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정신분석

작가 헤세 개인의 삶과 사상은 종교개혁 이후 20세기 후반까지의 유럽의 사상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역사적으로 경건주의는 낭만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데, 기독교 신비주의가 그 가교역할을 하였다. 경건주의자들은 속고를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 영적 실재함에 직접적인 개인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믿었는데, 그런 신앙은 이후 독일 낭만주의 철학의 독특한 형이상학적 및 이상적 속성이 형성되는데 기여하였다.<sup>42)</sup> 한편 낭만주의는 정신분석의 원형 중 하나이기도 하다.<sup>43)</sup> 즉 낭만주의 시인들은 깊은 환상적 특성을 가진 시와 산문들로 이후 출현한 정신분석을 연상케 하는 기본적 매트릭스를 보여줌으로 정신분석의 선구자가 되었다. 헤세도 청소년기까지 경건주의에 영향을 받아 시인이 되면서 노발리스가 제시한 신비주의적 낭만주의가 제시한 ‘내면으로의 길’을 선택하였다. 헤세는 청년기에 이미 일반적인 낭만주의자들과 달리 낭만주의적 문학을 내면의 정체성, 자의식 등을 밝히는 도구로 보았다. 그 ‘내면으로의 길’ 역시 독일 정신사에서 기독교 신비주의의 초기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청년 헤세가 성 프란시스코나 야콥 뵈메 등의 기독교 신비주의에 심취했던 것은 경건주의자이면서 낭만주의자로서 자연스런 것이었다. 거기다가 헤세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문화속에서 고백(회개)이라는 행동방식에 익숙해 있었다. 그래서인지 헤세는 정신분석에도 개방적이었다. 중년을 넘어서 헤세가 정신분석을 통해 자신의 삶과 내면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내면의 길은 무의식을 향하는 길이 되었고, 문학도 주인공이 내면을 방랑하면서 꿈, 기억, 환상, 마술 등을 통해 양극성을 통합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그리는 것이 되었다. 그 후 헤세는 다시 경건주의로 돌아오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새로운 범종교적 영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헤세 문학은 자전적

이며 고백적인 자기 치유의 과정에 대한 것이었다.

### 기독교와 정신분석 간의 차이

헤세는 아마도 이전부터 우울증이 자신의 죄의식과 관련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의 죄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분석에 의뢰하였는데, 그는 정신분석을, 기독교에서의 회개 또는 고해성사처럼, 죄를 정화하는 또는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 기대했던 것 같다.<sup>5)</sup> 그는 융 분석을 받으면서 겪는 마음의 고통을 죄에 대한 징벌로 간주한 것 같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대신에 자신의 고뇌와 잘못을 깨닫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한다면 언제든 다시 무죄가 될 수 있는 법이다”라고 스스로 다짐하였다.<sup>9)</sup> 그러나 그 고통은 발견(통찰)에 따르는 고통이지 죄 자체에 대한 징벌의 고통이 아니다. 결국 헤세는 정신분석이 죄 또는 죄의식을 통찰하게 해 줄 수는 있어도, 부모의 용서를 받게 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 결국 헤세는 정신분석을 비판하고 개신교도로 돌아갔다. 그 이유 중에는, 너무 단순화한 것 같지만, 기독교와 정신분석 사이에 유사한 점도 있으나 궁극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는 무신론자였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imago dei(하나님의 형상)를 인정하지 않았다. 융은 신의 개념이나 선과 악의 문제를 모두 원형 같은 심리적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전통 기독교와 다르다. 기독교에서의 죄 사함을 받는 회개(또는 고해)는 정신분석과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sup>44)</sup> 정신분석은 고통 받는 자가 원치 않지만 고통을 가하는 비의도적인 정신장애에 대해, 자유연상으로 무의식의 내용을 통찰하는 과정이며, 과거 경험이나 환경의 영향을 인정하며, 원죄 개념은 없다. 반면 기독교는, 고통의 원인에는 개인적 행동에 의한 죄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죄가 있으며, 이 모든 죄에 대해 통찰하고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과거나 환경은 문제 삼지 않고, 은총으로 죄를 사하고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였다고 말한다. 단 고백 이후에는 의지(will)로 죄와 악을 또다시 행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고통스런 투쟁적 자제심을 발휘해야 한다. 기독교는, 죄 문제에 있어 정신의학이 ‘의지의 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한계라고 본다. 기독교는, 분석가 앞에서 프로이트 학파의 자유연상이나 융학파의 확충의 과정을 통한 분석과 통찰을 통해 죄를 통찰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개선되거나 구원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이전보다 정신건강이 좋아졌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정신분석은, 병은 자기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속죄를 요구하지 않고 벌도 주지 않는다. 헤세의 경우, 보다 철저한 융 분석으로 자신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터이지만, 어려서부터 경건주의 훈육을 받았던 헤세로서는 결국 그러지 못한 것 같다. 헤세가 정신분석을 비판하였다고 해서 정신분석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 경건주의자 헤세

헤세는, 자신이 중년기에 고백한 것처럼, 타고난 개신교도였다. 중년기를 넘어선 헤세는 추억하기를, 경건주의 ‘교육’이 자신의 인격을 복종시키고 저항 정신을 파괴하고자 하였다고 하지만<sup>17)</sup> 그러나 당시 경건주의는 당시 헤세의 가문과 학교와 슈바벤 지역의 일반적 신앙이며 문화였다. 따라서 청소년 헤세에게 트라우마를 준 것은 경건주의라기보다, 경건주의를 핑계로 하는 권위와 그에 따른 억압적 교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헤세는 아마도 정신분석을 통해 부모가 자신을 징벌하였던 것은 부모와 경건주의의 악의적 의도 때문이 아니라 헤세 자신의 특이한 반항적 기질 때문이었고, 부모가 실제로는 자신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성인이 된 헤세는, 경건주의 자체는 높은 이상적 종교적 신념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다시 부모에게 돌아와 용서를 청해야 했다. 그러나 부모는 이미 죽어 없었고, 자신은 기독교로부터 너무 멀리가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헤세는 정신분석을 통해 경건주의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새삼 깨달았을 것이다. 그는 새삼 자신이 추구해왔던 자기 검토와 자기 앎을 추구하는 정신은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기독교의 교훈은 조부모와 부모에 의해 설교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보여준 것으로, 나를 형성하고 도야시킨 가장 큰 힘이였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4)</sup> 작가로서도 헤세는 자신의 문학에 기독교의 전통을 짜깁기함으로써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헤세의 더 어린 시절의 ‘잊혀진 기억’ 속에 있는 트라우마는, 부모나 경건주의 훈육과는 상관없는,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헤세는 이점까지 통찰할 수는 없었던 것 아닌가 한다. 더 깊은, 아마도 자신도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던 원죄적인 죄의식은 융 분석으로 해소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처럼 경건주의 정신은 헤세가 어릴 때 각인되어, 헤세 특유의 신앙, 즉 아집(Eigensinn, Eigen은 자신, sinn은 의미)으로 연결되었다. 그의 아집은 소아기 때부터 발견되지만, 특히 청소년기 때 부모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저항행동에 대해, 자신은 타고난 프로테스탄트로서, 프로테스탄트는 원래 protest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변명한 바 있다.<sup>5)</sup> 그러나 헤세의 아집은 고통을 불러왔다. 청소년기에 예술가가 되겠다는 헤세의 의지는 경건주의와 충돌하면서 양가감정적 고뇌<sup>20)</sup>가 시작되었고, 청년기에는 니체의

철학에서 말하는 의지의 개념에 공감하였지만 이 의지는 새로이 발견된 성프란시스코의 성인됨과 충돌하였고, 중년기에 내면(무의식)과 현실(의식) 간의 충돌이 있었다. 결국 아버지 죽음을 계기로, 정신분석을 통해 헤세는 아마도 자신이 그간 애써 부인하여 왔던 경건주의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어 자신의 본성(nature)과 갈등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 그는 그의 고통스러운 생애를 통해 양극성적 갈등이 자신의 사상과 문학의 주제였음을 통찰하게 되었다. 즉, 비판과 신앙, 반항과 경외, 자기의지와 헌신, 개인화와 초개인적 전체성으로의 합일 등 그 양극성을 통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건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로 인식되었다. 그는 내면을 발견하게 해준 정신분석과, 부모와 가문의 사람들(외사촌 포함)이 선교사로 일했던 동방의 종교와 사상들을, 자신의 가문의 혈통인 프로테스탄트 경건주의와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이 자신이 감당할(가문의 선교사적 정체성을 계승하는) 사명(mission)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명이 그의 아집에 포함되었다. 양극성의 인정과 합일을 향하는 길은 헤세의 종교성의 특수성이 되었다.<sup>4)</sup>

사회사상에서도 그는 전통적 경건함에 새 시대를 위한 반항정신을 통합하였다. 헤세가 보여준 통상적인 부르조아 문화에 대한 비판, 자본주의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 제국주의 비판, 에큐메니즘, 반전-평화사상, 사회주의 옹호, 도덕적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등은 경건주의적이다. 특히 그의 반전-평화주의 사상은 그가 융 분석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한 바, 선과 악의 공존이 세상에도 있음을 알게 됨에 따른 종교적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헤세는 1차 세계대전과 관련하여, 슈펜글러도 말한 바 있는 ‘유럽의 몰락’을 기독교 묵시론적으로 해석하였다. 헤세는 파괴된 후 새로이 건설되는 세상에 대한 비전, 즉 경건주의 창시자 슈페너가 말한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천년왕국적 비전(chilastic vision)’을 가지고 있었다.<sup>15)</sup> 그리고 그 희망을 청소년기에 두었다. 그는 황폐해져 가는 세상에서 종교적 영성을 강조함으로 도덕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는 기존 교회 체제와 통상적 사회 문화를 비판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전통의 타파보다, 경건주의, 낭만주의, 정신분석의 의학적 합리주의, 그리고 종교적 영성 등 기존의 전통적 윤리적-종교적인 원칙들을 옹호하는 편이었다.

이처럼 헤세는 소아기에 경건주의 훈육을 받으며 자랐고, 청소년기 반항과 청년기의 낭만주의의 순수성을 거쳐, 중년기에 내면(무의식)의 본성과 관능을 발견하고 혼란을 겪은 후, 다시 자체와 경건의 삶으로 돌아왔다. 이제 헤세의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제언은 ‘속박과 헌신’이 되었다. 실제적인

로는 속박은 자제(자기 통제, 경건함)로, 헌신은 '이웃에 대한 봉사'로 나타났다. 헤세는 실제 봉사활동도 많이 하였는데, 독일군 포로 돕기, 정치적 난민 돕기, 전후 독일에 대한 기부행위, 수많은 독자들에게 답장편지 쓰기(그는 평생 35000통의 편지를 썼다고 함) 등이다. 그는 자신의 문학 창조도 시인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했다. 헤세는 시와 소설은 물론 광범위하게 공부하면서, 독일 문학의 편찬과 소개, 서평이나 평론 쓰기, 신문발행 등을 열심히 함으로 사회와 독자들에게 봉사하고자 하였다. 소설을 통해서도 봉사를 제시하고 있다. 최후의 작품 <동방여행>과 <유리알 유희>에서 지도자 또는 엘리트의 '종(servant)으로서의 봉사'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소설에서 주인공 크네히트의 죽음은, 죽음을 통해 미래세대를 교육하라는 봉사의 의무를 부과하는 새 시대의 희망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sup>34)</sup>

헤세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에는 기독교의 예정론(predestination theory)이 관련될 수도 있다.<sup>15)</sup> 헤세가 자신이 개신교도라는 사실에 대해 '타고난' 또는 '가문(친가와 외가 조부모와 부모)'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그가 무의식 중에 예정론을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문학에도 자주 '미리 정해진 길(predestined path)'을 간다는 개념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나르치스는 학자가 되게 예정되어 있었다" 또는 "크네히트는 (선택되어) 카스탈리아 종단으로 가게 운명지워져 있었던 행운아 중의 한 사람이었다"같은 내용들이다. 헤세 자신도 어려서 탁월한 재능으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후계자로, 가문과 고향의 관습에 따라, 마울브론 신학교에 진학하여 장차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선택된 엘리트로서 성직자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여기서 성직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자신도 "마음 안팎의 갈등으로 고통 받았지만, 통합이라는 이상으로 그 고통을 해결하는 길을 찾도록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 문제가 결국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였다(선지자처럼 고난과 박해를 겪으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 문학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의 사명(mission, 부모가 수행한 선교의 의미도 있음)이었고, 이를 성취함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모든 헤세의 신념은 하나의 신앙으로, 아집으로 또는 자기 신뢰로, 반복되는 인생의 위기에서 헤세를 지켜주었다. 따라서 헤세는 애초 경건주의 개신교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헤세 자신이 오랫동안 이에 대해 양가감정적으로 애써 부인하려 하였고, 그래서 죄의식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다.

#### 헤세의 새로운 종교적 사명과 그의 범종교적 영성

헤세는 청소년기 이후 경건주의를 자신의 불행의 원인으로

보고 그 특유의 고집(아집, 종교적 충동)으로 자신에게 걸맞는 종교적 대안을 모색하는 행동을 지속하였다. 그는 세상의 여러 종교 사상들을 편력하였다. 그는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도 개방적이 되었다. 이러한 개방적 정신은 헤세 경건주의 가문의 해외선교 정신(에큐메니즘)과 비국수주의적인 다문화 정신 등과 관련이 있다. 중년기 이후 다시 경건주의 개신교로 돌아온 헤세는, 자신이 경험한 융 정신분석과, 공부한 동방의 종교와 사상들을, 프로테스탄트 경건주의와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이 자신의 종교적 사명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힌두교, 불교, 유교 등도 나름 경건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보았다. 헤세는 융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자기실현 등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거듭남, rebirth)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했다.<sup>14)</sup> 헤세는 융 정신분석은 물론 영지주의, 중국 도교, 힌두교/불교, 심지어 기독교 신비주의 등은 공통적으로 선과 악 같은 양극성의 조화와 합일을 추구한다고 본 것 같다. 그 결과가 그의 인간화 3단계(triad rhythm of humanization)의 신학으로 나타났다.

헤세가 말하는 새로운 신앙체계는 모든 종교와 종교적 철학들과 심리학들을 우주적 신비(universal mysticism)로 통합한, 절충적(eclectic)인, 전일적인, 범종교적 그러나 '거의' 기독교적인 하나의 신앙 체계이다. 이는 내면화의 단일성과 외부화하는 다양화 사이의 조화, 또는 성찰과 자기 의심의 내면의 길을 통한 영적 해방의 과정이다.<sup>10)</sup> Lee<sup>45)</sup>는 헤세의 종교사상을, 세상의 모든 신앙을 함께 긍정하는 우주주의(Universismus) 종교사상이라 하였다. 헤세는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사상에 찬성하는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않았다. 이 신앙은 도그마가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점에서 경건주의적이며, 도그마의 종교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대의 세상을 위한 개혁적인 시도이다. 이로서 헤세는 동시대의 알버트 슈바이처, 데이야르 드 샤르댕 등과 더불어, 새로이 출현하는 유사한 종교철학을 가진 일단의 지식인들의 선구자들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헤세의 신앙은, 신과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의 '속박과 헌신'으로 되었다.<sup>2)</sup>

그러나 헤세의 '거의 기독교적'인 새로운 신앙체계는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경건주의 기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그가 개신교도라면 그냥 기독교를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악을 거부하면 되는데, 그는 왜 굳이 선과 악의 공존과 합일을 주장하며, 다른 종교들과의 통합을 주장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양가감정적 갈등을 끝내 해결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줄곧 기독교를 비판해 온 그의 아집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헤세는 자신의 새로운 '종교'가 자신의 죄의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타협하

였던 것 같다. 악을 인정하면 죄의식에 괴로워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자기실현의 대가로서 죄의식은 필연적인데, 헤세는 자기실현을 종교화함으로 죄의식이라는 자신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 같다.

### 문학과 내면의 진실

헤세는 우울증 같은 인간적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천재성과 진지한 개인적 노력으로 작가가 되어 인간에 대한 통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작가 헤세의 문학과 사상이 그의 내면의 진실과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 문학은, 작가의 내면이, 방어기제를 통해 걸러지고 승화되고 또한 문학적 기교로 매력적으로 가공되어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인생에 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구원이 죄 문제라면, 헤세 자신은, 깊은 성찰을 통해 깨닫게 된 내면의 죄를 문학으로 세상에 ‘공개’함으로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는가? 그렇다면 그는 왜 내내 우울해 하였는가? 같은 의미에서, 그는 왜 문학을 하였는가? 헤세는 독자들이 주인공들의 죄가 폭로되고 그들의 괴로움이 토로되는 문학을 읽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도우려 한 것인가? 대답은, 결국 헤세에게 문학이 독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내면에 대한 방어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다. 헤세 문학은 자기 고백적 내지 자기 정화적인 자전적 문학으로,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자기주장이었다. 그의 문학 방식이 환상적 내지 유희적인 것은 자기의 상황을 소아기적인 것으로 만듦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직면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따라서 헤세 소설이 자신의 진정한 내면의 발견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융 이론을 소설화한 것인지, 또는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의 희망을 투사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때, 헤세 문학은 오히려 작가 자신의 내면을 감추는 또는 변명하는 방어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즉 헤세는 원래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발달하게 예정되어 있었는데, 어릴 때의 트라우마에 의해 생겨 난 부정적 감정 때문에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실현하는 것에 저항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헤세 소설에서, 집을 떠나 진정한 자기를 찾아간다는 여정은 오히려 진정한 정체성으로부터 멀리하는 또는 진정한 성숙을 방해하는 행동이 된다. 이러한 생각이 논리적이라면, 그가 새로운 초월적 종교적 체계를 제시하였어도, 이는 자신의 아집에 근거한 개인의 정신적 고안물에 불과할 수 있다.

헤세 문학은 그래서 자신 내면의 분열상태 또는 사회와의 갈등 상태 또는 죄의식 문제를, 신에게 귀의하기보다 신비한 예술적 환상 속에서 마스터하고 스스로 치유하려는 노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인공들의 구원 또는 깨달음을 향한 여정은 상징적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으나, 비서사적이고 난해하며, 끝내 ‘자기’를 찾았는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 주인공들은 방랑(도피)의 마지막에 돌연 죽거나 결말이 상징적이며 모호하다. 마지막 대작 <유리알 유희>에서도 주인공은 다시 유토피아를 버리고 떠나는데, 아마도 ‘미지’의 새로운 사명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사상적으로 불가지론자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sup>2)</sup> 이에 대해 헤세는 무슨 길이든 자신이 선택하여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조언하려는 것이지, 어떤 길로 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견해에 사람들이 찬성하든지 아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제시만 하고 설득하려 하지 않아 삶의 방관자처럼 보인다. 따라서 비록 헤세의 문학이 종교와 영성으로 돌아오는 정신의 위대한 여정을 그리고 있고, 자신은 원래부터 개신교도였다고 공개하지만, 헤세 자신의 내면은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였다기보다, 괴로워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괴로움은, “사랑받을 수 있었지만 반항함으로 스스로 거부하였다” 또는 “사랑받았지만 반항심으로 이를 부인하였다”는 소아기 근원의 후회와 분노와 죄의식이라 생각한다. 헤세는 성인 남성으로서의 분노, 성적 충동, 정체성 같은 문제는 인격의 성숙, 문학, 정신분석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소아기 근원의 후회와 죄의식은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 같다. 따져보면 소아기 근원의 죄의식은 어린 자신의 탓도 아니며, 그를 경건주의로 ‘교육’하려 했던 부모의 탓만도 아니다. 어린 순수함이나 지능, 경건주의, 그리고 교육, 비판정신 자체는 죄가 없다. 헤세의 문제는 부모 자식 모두의 인간적 조건의 결함, 즉 인간성과 인간적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동물 세계(자연)에는 인간성이 없고 따라서 죄의식도 없기 때문이다. 헤세는 늦게나마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만(그리고 돌아오지만) 헤세의 죄를 용서해 줄 부모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다. 그는 끝내 영원한 집 나간 청소년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한다.

헤세 문학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이란 누구나 대개 미완의 청소년기적 존재로서 현재의 갈등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싸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헤세가 자신이 비적응적인 이유의 하나로 든 바처럼, “사회가 불안정하다”고 사회 환경 탓으로 투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좌절되고 불안한 젊은이들은 헤세의 비판과 제안을 현대 사회의 대안으로 보고 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헤세 자신은 자신이 젊은이들에게 조언하는 ‘현자’라고 불리는 것을 몹시 싫어하였다고 한다. 그는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

있고 그런 성과를 구원으로 여기고 싶었을 터이지만, 한편 양심상(죄의식과 열등감으로)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자신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다소 냉소적이었다.<sup>2)</sup>

그래서인지 그에게 다소의 우울증이 평생 지속되었던 같다. 특히 그가 죽기 직전의 시 〈꺾어진 가지의 뼈적거림〉은 그의 여전한 우울한 서정을 보여준다. 즉 꺾어진 가지는 단절되어 죽어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고, 그 메마른 뼈적거리는 소리는 마지막 저항, 체념, 절망,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헤세가 이를 세 번이나 개작 시도한 것은 그의 강박적 완벽주의를 시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궁극적 내면의 표현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 한 것을 의미한다. Erikson<sup>46)</sup>은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확립에 실패하는 것을 정체성 위기라 하였으며 이를 잘 극복하면 이후 인생은 여러 단계를 거쳐 노년기에 지혜자로 성숙되어 간다고 했다. 헤세는 청소년 위기를 거쳐 위대한 작가가 되었고 현자로 추앙되고 있으나, 그의 내면은 여전한 위기를 보여준다.

## 요 약

헤르만 헤세(1877~1962)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독일 작가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개인적 삶은, 어린 시절의 ‘잊혀진 기억’ 속의 트라우마와 죄의식과 정체성 문제, 부모의 억압적인 경건주의적 훈육에 의한 청소년기 트라우마, 중년기 우울증, 그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융 분석을 받았다는 것 등이 특징적이다. 특히 그의 소아청소년기는 가문의 독일 기독교 경건주의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았는데, 어린 헤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부모의 경건주의 훈육에 강하게 반항하였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부모의 사랑과 인정받음에 대한 많은 긍정적 기억을 가지고 있어, 부모에 대해 양가감정적이었다. 15세 때 성직자의 길을 가기 위해 다니던 신학교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일으켜 퇴학당하고 정신요양원에 강제 입원 당하였는데, 거기서 그는 멜랑콜리아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정신요양원에서 더욱 아버지와 기독교에 대한 극렬한 반항을 보이면서도 한편 아버지의 사랑과 이해를 소원하였다. 이러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헤세의 정신성 발달은 청소년기에 고착된 것 같으며, 그 고착은, 평생 헤세의 청소년기적 정신을 형성하였고, 주변의 사람들과 통상적 사회에 대해 양가감정적 관계를 가짐에 따라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로서 어려운 삶을 살았다. 결국 그는 인생주기에 따른 위기들을 겪으면서 결국 중년기에 우울증

이 발생하였다. 그는 자신의 삶과 관련된 고통들, 즉 정체성 문제, 내면의 진실 추구 등을 그의 문학과 인간됨(Menschwerdung) 등에 관련된 그의 사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청년기에 헤세는 낭만적 시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젊은 남자들의 여정을 그린 소설을 씀으로 작가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39세 때,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유발 인자가 되어 우울증이 발생하였다. 그의 우울증의 소인에는 우울증의 가족력, 그의 예민하고 반항적인 고집스러운 기질이 포함된다. 또한 당시 그는 부부불화, 한 아들의 질병 발병,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중 그의 반전사상에 대한 독일 사회의 강한 비판 등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중년기의 위기들은 억압적인 아버지상들에 대한 양가감정적 공격성에 관련된 억압된 죄의식과, 사춘기 이후 고통받아온 성적 갈등에 대한 억압된 죄의식을 되살려 우울증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헤세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요셉 랑과 융에게 10여 년에 걸쳐 융 분석을 받았다. 융 분석은 한동안이나마 헤세가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낭만주의를 벗어나 새로운 문학을 창조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이 새로운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내면의 자기를 찾아 그리고 마음의 양극성(선과 죄/악)을 통합하기 위한 여행을 한다. 그러나 우울증은 반복 재발하였다. 그의 정신분석에 대한 칭송은 비판으로 바뀐다. 헤세는 새삼 자신은, 과거 기독교를 비판해 왔지만 그 비판은 기독교의 도그마에 대한 것으로, 자신은 넓은 의미에서 타고난 개신교도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가 삶으로 살았던 경건주의가 자신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50대에 중년기 위기가 해소되면서 헤세는 새로운 문학 창조를 시작하는데, 이는 융 분석의 양극성을 넘어, 인류 역사상의 인류가 발전시켜온 철학적 종교적 및 예술적 유산들을 모두 하나의 더 큰 조화로운 영적 하나됨으로 통합하는 여정을 그리는 것이었다. 그는 경건주의의 교훈들과, 정신분석의 합리적 통찰들, 그리고 그가 공부한 철학들과 세상의 종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저의 기독교적인’ 우주주의적 또는 범종교적 영성을 제시하고, 독자들에게 종으로서 인류에 봉사하는 것을 조언하였다. 경건주의는 헤세의 삶의 여정에서 한때 고통의 원인이었지만, 헤세의 평생에 걸친 자집(Eigensinn, 신념)과 그의 독특한 문학 창조와 영적 성숙을 도왔다고 평가된다.

헤세의 과거력, 우울증의 가족력, 자살 사고와 여러 정신신체 증상들을 포함한 우울증상들, 그리고 감정변화의 임상적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상태는 II형 양극성 장애로 진단된다. 주된 역동적 요인들은 ‘잊혀진 기억’과 관련된 죄의식,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과, 아버지상들에 대한 공격성과 성적 갈등에 대한 죄의식 등이다. 그의 양가감정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였고,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였다. 그의 공격성은 죽음에 대한 집착이나 통상적 사회에 대한 비판 등 수동적으로 표현되었다. 그의 성적 갈등은 그의 복잡한 결혼 생활과 소설에서의 여성 등장인물들의 역할에 반영되고 있다. 그의 대응방식은 주로 자제(경건주의적 자기 통제), 회피, 공부하기, 그리고 문학창조로 보인다. 헤세는 자신의 인생의 위기 경험과 정체성 또는 자기를 찾는 여정에 기반한 자전적 교양소설(Bildungsroman)을 씀으로 자신의 개인적 문제들을 마스터할 뿐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독자들을 각성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서정시들은, 헤세가 아버지를 떠난 아들로서의 죄의식을 극복하지 못해 여전히 우울하였음을 반영하는 것 같다.

**중심 단어 :** 헤르만 헤세 · 경건주의 · 우울증 · 융 정신분석 · 양가감정 · 공격성 · 성적 갈등 · 죄의식 · 문학창조.

## Acknowledgments

본 논문을 완성하는 데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인웅 명예교수님과 함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has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 REFERENCES

- 1) Freedman R. Hermann Hesse: pilgrim of crisis a biography. New York, NY: Pantheon Books;1978.
- 2) Mileck J. Hermann Hesse: biography and bibliograph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77.
- 3) Schneider CI. Hermann Hesse. München: CH Beck;1991.
- 4) hermann-hesse.de [homepage on the Internet]. Hermann-Hesse-Portal. Life and his family [cited 2016 Jun 30]. Available from: <https://www.hermann-hesse.de/ko/%EC%83%9D%EC%95%A0/%EA%B0%80%EC%A1%B1>.
- 5) gss.ucsb.edu [homepage on the Internet]. Hermann Hesse and Sigmund Freud. © HHP and Prof. John Cremerius. [cited 2015 May 5]. Available from: <http://www.gss.ucsb.edu/projects/hesse/papers/cremerius.pdf>.
- 6) Michels V. Hermann Hesse and psychoanalysis. In: Cornils I, editor. A companion to the works of Hermann Hesse. Rochester, NY: Camden House;2009. p.320-344.
- 7) Baumann G. Hermann Hesse and the psychology of C.G. Jung.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Hesse Colloquium in Calw; 1997 May 9; Calw, Germany.
- 8) Maier E. The psychology of C.G. Jung in the works of Hermann Hesse [dissertation]. New York (NY): New York Univ.;1952.
- 9) Mondon C. Hesse's tale, and the influence of psychoanalysis.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Hesse Colloquium in Calw; 1997 May 9; Calw, Germany.
- 10) Breugelmans R. Hermann Hesse and depth psychology. Can Rev Comp Lit 1981;8:10-47.
- 11) Stelzig EL. Hermann Hesse's fictions of the self: autobiography and the confessional imagin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p.71-79.
- 12) Lee IU. Psychoanalysis and Hesse's literal creation. Behav Sci Med 2008;7:90-101.
- 13) Cheong KY. Hermann Hesses Demian und die Religionspsychologie von C. G. Jung. Hesse Forsch 2000;4:27-48.
- 14) Han OS, Han YJ. Influence of C. G. Jung on Hesse. Behav Sci Med 2008;7:83-89.
- 15) Stephenson B. Veneration and revolt: Hermann Hesse and Swabian pietism. Waterloo: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1966.
- 16) Limberg M. "My father's shadow as a pursuer": Hermann Hesse and his father.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Hesse Colloquium in Calw; 1997 May 9; Calw, Germany.
- 17) hansbeihl.com [homepage on the Internet]. When caring parents break their children's hearts. Hermann Hesse: search for the self [cited 2014 Apr 2]. Available from: <http://www.hansbeihl.com/wp-content/uploads/2013/03/lovethathurts2.pdf>.
- 18) Minkus E. Traces of motherhood in Hesse's works.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Hesse Colloquium in Calw; 1997 May 9; Calw, Germany.
- 19) hermann-hesse.de [homepage on the Internet]. Hermann Hesse portal. Resume-life story briefly told [cited 2016 Jun 30]. Available from: <http://www.hermann-hesse.de/ko/1/27-0>.
- 20) Hirsch W. Hermann Hesse in Bad Boll und Stetten. Lebenszeugnisse, Briefe, unveröffentlichte Dokumente. Hirausgegeben von der Diakonie Stetten e.V.;1999.
- 21) Min SK. Hesse's critical youth. Behav Sci Med 2008;7:68-82.
- 22) Klaus B. Hermann Hesse (1877-1962): anything other than a robust temperament. Deutsches Aertzblatt. 2012 Aug; PP 11. p.363. Available from: [http://www.aerzteblatt.de/archiv/128384/Hermann-Hesse-\(1877-1962\)-Alles-andere-als-ein-robustes-Naturell](http://www.aerzteblatt.de/archiv/128384/Hermann-Hesse-(1877-1962)-Alles-andere-als-ein-robustes-Naturell).
- 23) Fahlbusch E, Lochman JM, Mbiti J, Pelikan J, Vischer L. The encyclopedia of christianity, vol 4. Grand Rapids, MI: Eerdmans Pub Co.; 2005. p.218-220.
- 24) Stoeffler FE. German pietism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Leiden: E.J. Brill;1973.
- 25) Farrell D. The forgotten childhood of Hermann Hesse. Annu Psychoanal 1987;15:247-268.
- 26) Helt RC. A poet or nothing at all: tuingen and basel years of Herman Hesse. Providence, RI: Berghen Books;1996.
- 27) Limberg R. Therapeutic aspects of painting by Hermann Hesse.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Hesse Colloquium in Calw; 1997 May 9; Calw, Germany.
- 28) Hesse H. Artist and Psychoanalysis (1918). Translated by Miriam M. Reik. Psychoanalytic Review 1963;50C:5-6.
- 29) von Olenhusen AG. Sigmund Freud, Max Weber and the sexual revolution. In: Heuer G, editor. Sexual revolution. Psychoanalysis, history and the father. New York, NY: Routledge;2011. p.89-104.
- 30) Feitknecht T. Doktor un Freund. Neue Zürcher Zeitung, Beilage. 2004, Oktober 30./31. S. 69 [cited 2013 Jul 2]. Available from: <http://www.dpg-stuttgart.de/Hesse%20und%20Lang.pdf>.
- 31) Curtius ER. Hermann Hesse. In: Bloom H, editor. Bloom's modern critical views. Hermann Hesse. Broomall, PA: Chelsea House Publishers;2003. p.3-18.
- 32) Park CH. Das Leben von Ninon Hesse als die letzte geliebte Frau Herman Hesse. Hesse Forsch 2012;33-49.
- 33) Mahony P. Prize G. Depression. In: Erwin E, editor. The Freud Encyclopedia. Theory, therapy, and culture. New York, NY: Routledge; 2002. p.241-242.
- 34) Roberts P. Life, death and transformation: education and incompleteness in Hermann Hesse's the glass bead game. Can J Edu 2008;31:667-696.
- 35) Andreasen NC.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and mood disorders. Dialogues Clin Neurosci 2008;10:251-255.
- 36) Galvez JF, Thommi S, Ghaemi SN. Positive aspects of mental illness: a review in bipolar disorder. J Affect Disord 2011;128:185-190.
- 37) Akhtar S. Comprehensive dictionary of psychoanalysis. London: Karnac Books Ltd;2009. p.164.

- 38) Palmer CB. The significance of homosexual desire in modern German literature [dissertation]. St.Louis (MO): Washington Univ.;1997.
- 39) Park KJ. Die Knabenliebe in den Romanen von Hermann Hesse. *Hesse Forsch* 2006;12:23-42.
- 40) Steinberg W. Depression: a discussion of Jung's ideas. *J Anal Psychol* 1989;34:339-352.
- 41) Rhi BY. Stories on analytical psychology. Seoul: Jipmun-dang;2014. p.143.
- 42) Eaghll T. From pietism to romanticism: the early life and work of Friedrich Schleiermacher. In: Collins Winn CT, Gehrz C, Carlson GW, Holst E, editors. *The pietist impulse in Christianity*. Cambridge: James Clarke and Co.;2012.
- 43) Faflak J. Romantic psychoanalysis: the burden of the mystery. New York,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2007. p.1-30.
- 44) catholicculture.org [homepage on the Internet]. Confession and psychiatry. by John B. Sheerin, C.S.P. [cited 2017 Jan 5]. Available from: <https://www.catholicculture.org/culture/library/view.cfm?recnum=8336>.
- 45) Lee IU. Hesse's 'trans-religion' and a new god inside our mind. *Christian Thought* 1988;358:79-89.
- 46) Erikson EH.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Y: WW Norton & Company;1950. p.242.